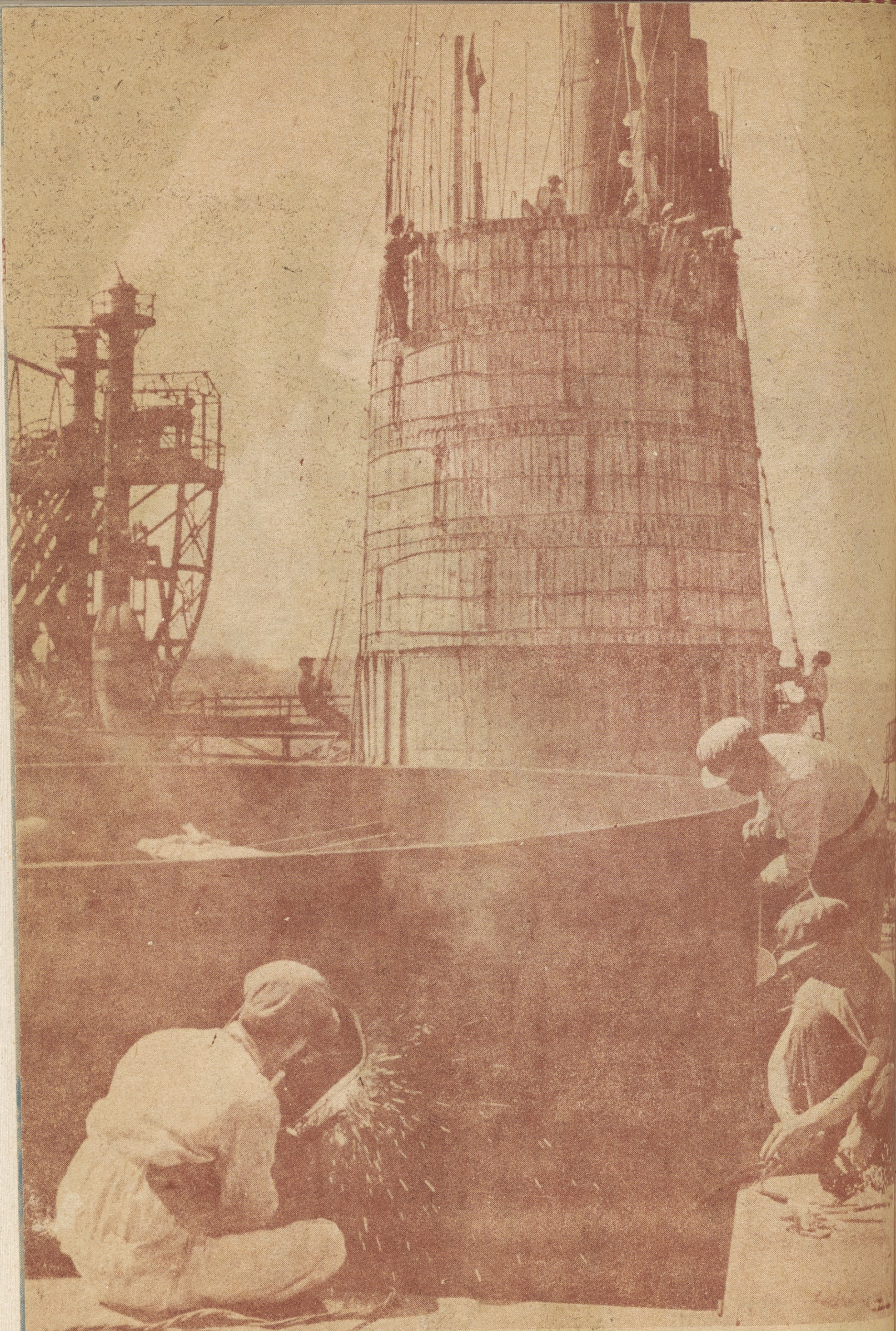


청년생활

195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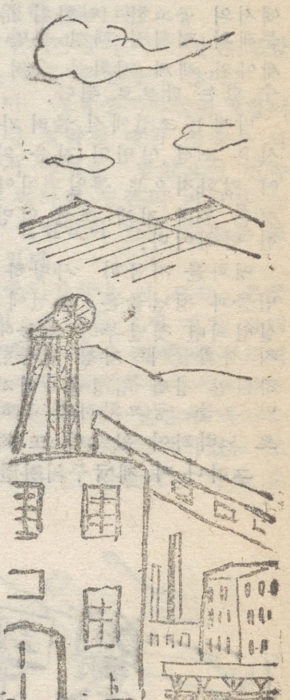


황해 제철소 용광로의 복구 공사장

청년생활 1957. 7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미제의 전쟁 도발책동을 폭로 분쇄하자

정전 협정의 엄격한 준수는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의 유지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 뿐만 아니라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 공고화 할 수 있는 담보로 된다.

미제는 조선에서 물러 가야 하며 조선은 조선 인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전체 조선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이다.

평화를 지극히 사랑하는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되던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가장 귀중한 전취물의 하나인 정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그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금번 또 다시 조선 정전 협정을 파괴하고 우리 조국 남반부에 신형무기를 끌어 들이려는 도발적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때문에 공화국 정부는 지난 6월 26일에 미제의 이와같은 책동을 반대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조선 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표시한 것이다.

미국 전쟁 도발자들의 정전 협정 파괴 행동이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다. 미국측은 포로 송환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를 유린하고 48,000여명의 조, 중측 전쟁 포로를 강제 억류한 사실, 미군의 남조선 장기 주둔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조작한 사실, 남조선의 반인민적 괴뢰 《국군》을 16



개 사단으로부터 31개 사단으로 증강한 사실, 바로 이와 같은 놈들의 범죄 행동을 감추기 위하여 남조선 출입항으로부터 중립국 시찰 소조들의 합법적 활동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사실 등 정전 협정을 파괴하려는 활동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와 같은 책동이 노리는 목적은 뚜렷하다.

그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신형 무기를 마음대로 끌어 들이며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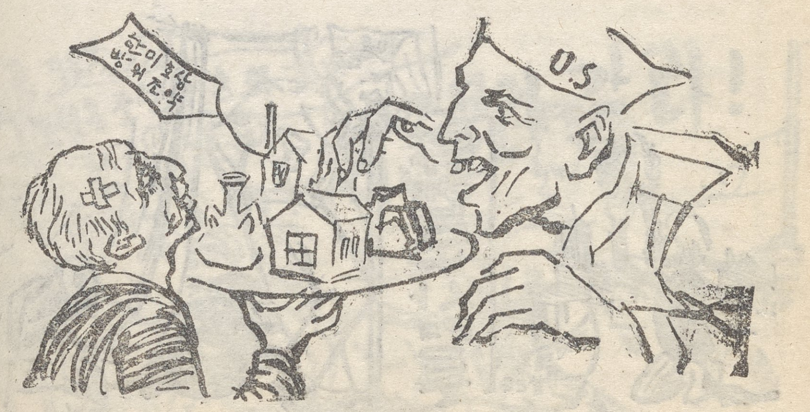
특히 최근에 와서 그들의 이와 같은 기도는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그들은 지난 시기 우리의 부모 처자를 마음대로 학살한 미제 침략군의 본거인 《유. 엔군 사령부》를 서울에 끌어 들이면서 6월 21일에는 군사 정전 위원회를 통하여 정전 쌍방이 《조선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 오는 것을 정지》할 것과 군사 장비의 교체에 관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정전 협정 제 13항 ㄹ목의 준수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고 파렴치하게 성명하였다

이 도발적 책동이 가져올 후과는 명백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적 책동은 조선과 극동 지역에서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킬 것이며 조선에서 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이며 인민들에게 막대한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게 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험성을 조성할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도발적 책동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오늘날 미 제국주의자들이 《힘의 립장》에 선 침략적 대외 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배척을 받았으며 민족적 독립과 평화적 공존의 기치를 높이든 각국 인민들의 반미 감정을 격화시키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모든 곤궁으로부터의 출로를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며 원자 전쟁 준비로써 인민들을 직접 위협하는데서 찾고 있다. 미제는 벌써 일본과 대만을 자기의 원자 기지로 전변시켰고 또 남조선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



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정전 위반 책동이 침략적 원자 전쟁 도발을 위한 자기들의 전반적 계획 실천의 한 고리로 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남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금번의 책동은 한편으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반미 감정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탄압하며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을 원자 및 유도 무기 기지로 전변 시킴으로써 극동에서의 새 전쟁 도발을 위한 전초 기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책동은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지향과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다.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선차적이며 절실한 문제는 하루 속히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단일한 국가가 인공적으로 량단되고 같은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고 있는 불행이 하루라도 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담보로 되는 정전을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절실한 지향이다.

우리들은 정전 협정의 엄격한 준수와 그의 공고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여왔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 성원들의 온갖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 조선 인민군 무력의 8만명 축소와 중국 인민 지원군의 19개 사단의 조선으로부터의 철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화국 정부의 수차에 걸치는 제의 등은 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 준다.

오늘 미제가 감행하고 있는 그 어떠한 도발적 기도도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조선 인민을 놀래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여 우리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물러가라!》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격노에 찬 목소리가 우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화산같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제의 금번의 범죄적 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 수 없다. 조선 정전 협정은 그 어느 일방의 단독적 의사로써 페기될 수는 도저히 없다. 조선 문제는 미제가 꿈꾸고 있는것 처럼 무력이나 원자 무기로써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조선 문제는 오직 외국의 간섭이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남북 총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전 협정을 파괴하면서 남조선에 신형 무기를 끌어 들인다면 이로부터 발생될 모든 후과에 대하여 미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정당하게 지적되여 있는바와 같이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긴급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조선의 무력을 최소 한도로 축소하고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킴으로써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가능성을 하루 속히 만들어 내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조선 문제에 관계가 있는 나라들의 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남북 조선의 접촉과 협상을 실현할것을 언제나 주장하여 왔으며 또 주장하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자기들의 념원과 전'적으로 일치되는 공화국 정부 성명을 절대 지지하면서 미제의 파렴치한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여 싸울 결의에 차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전체 청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실천을 위하여 생산에서 보다 많은 예비를 동원하며 자재 절약과 증산 경쟁 운동을 더 많이 조직 전개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금년도 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을 위한 음흉한 책동에 타격을 주자!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강철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의 앞길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청년들은 한 사람같이 나서자!



청춘의 재능과 지혜를 청년 탄광 건설에!





7월 1일부터 송남 청년 탄광 개발 공사가 시작되였다. 송남 청년 탄광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손에 의하여 개발되는 탄광이다.

지난 3개년 기간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우리의 석탄 공업은 당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놀라리 만치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석탄 공업은 빠른 속도로 증대되여 가는 인민 경제 각 부문과 석탄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석탄 자원이 무진장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 우에 앉아서 막대한 량의 석탄을 매년 수입》 함으로써 막대한 량의 귀중한 외화를 소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는 우리 앞에 석탄을 수입하는 현상을 없애며 《증대되는 공업, 운수 및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과업을 내 놓았다.

민청 제 4차 대회는 당의 부름에 따라 청년 탄광을 건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매 공사장 마다에서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언제나 당의 부름에 충실하여 어렵고 힘든 작업에서 단련된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 장차 청년 탄광의 핵심을 이룰 선발대이며 돌격대이며 송남 청년 탄광의 영원한 주인이라는 고상한 자각과 긍지를 간직하고 있는 이곳 청년 탄광 건설의 첫 파견자들은 매 작업에서 높은 로력적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로력과 학습에서, 기타 생활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공장, 사무 기관,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와 금번 졸업하는 초, 고중 학생 청년들은 영예스러운 탄광 건설자들의 대오에 계속 참가할 것을 탄원하고 있으며 공사에 파견된 청년들에게 다양한 선물 조직과 편지 교환을 통하여 그들의 영웅적 로력을 계속 고무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탄광 개발 공사에는 어려운 난관도 많다. 그러나 첫 탄광 개발자들이라는 영예와 자랑과 기쁨, 당의 신뢰와 기대를 어기지 않으려는 굳은 결의, 난관 속에서 이루어질 앞날의 행복에 대한 확신은 어려운 난관들을 박차고 공사를 앞으로만 밀고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 무연탄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평남 북부 탄전 주요 지점인 송남 지구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곳이다. 이 탄광의 매장량은 매우 풍부하여 개략적인 계산에만 의하더라도 4,100 여 만톤의 방대한 석탄 매장량이 예견된다.

앞으로 송남 청년 탄광에서는 1년에 약 40—50만톤의 무연탄을 생산하게 될 것인데 이 탄광은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문화 시설을 갖춘 대 규모적인 탄광으로 건설된다. 석탄의 질도 매우 좋다.

여기에서 캐 내는 무연탄은 매 톤당 6,700카로리의 높은 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개천 탄광, 덕천 탄광, 조양 탄광등 기타 탄광에서 생산되는 무연 탄과 비교하면 약 200—700카로리나 더 높은 열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채굴 및 운반 조건도 대단히 유리하다. 즉 이 지구의 동쪽 약 5키로메터 지점에는 평양—덕천간의 철도가 달리고 있으며 가창을 통과하는 덕천과 순천간 자동차 도로가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앞으로 탄광에는 가창—송남 (4. 5키로)간 철도 인입선과 산업 도로가 건설될 것인데 이것이 완성되면 평원선과 평덕선의 교차점인 신성천과 평원선과 만포선의 접축점이며 기점인 순천을 경유하여 우리 나라의 공업 중심지인 흥남과 평양 기타 공업 지대에 이 탄광에서 나오는 무연탄을 대량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송남 청년 탄광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송남 청년 탄광 개발 공사를 담당 수행하게 된젊은 사회주의 건설자인 우리의 책임은 비할 데 없이 크며 또 영광스럽다.

송남 청년 탄광 건설에 파견된 영예로운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이여! 당신들의 손에 굳게 쥐여진 삽과 곡괭이에 륭성 발전할 조국의 미래가 있다. 우리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언제나 조국을 위한 난관과의 투쟁 속에서 자기의 행복과 리상을 찾았으며 또 찾고 있다. 당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의 억센 력량으로써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청년 탄광 건설 공사를 성과 있게 수행하는 것으로써 당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자!

희망과 결의를 안고



나는 우리 직장에서 맨 먼츰 송남 청년 탄광 개발 공사에 갈 것을 탄원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영예로운 선발대로서 그 곳 처녀지에로 향한다.

우리 나라 무연탄 총 매장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평안남도 북부 탄전의 주요 석탄 기지인 송남 지구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의 손에 의하여 새롭고도 현대적인 탄광 도시가 건설될 것이다. 아무 것도 없던 벌판에 새 집들은 일어서고 기차가 기적소리 높이 달리고 밤도 낮처럼 밝은 탄광 도시가 기적과도 같이 솟아오를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예로운 과업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옛날 일제때 같으면 우리 조선 청년들이 이와 같은 거창한 과업을 담당하리라고 꿈엔들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 청년들이 이 영예로운 과업을 담당 수행하게 된 것은 우리들이 로동당의 후비대로서, 나라의 기둥으로서 또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인민이 우리를 찬양하고 후대들이 우리들이 아로새긴 건설의 산《재료》로 교양 받을 것이다. 비록 우리들의 건설에 곤난과 난관은 중중첩첩하더라도 우리의 땀으로 맺어질 승리의 열매는 그 얼마나 아름차랴! 이제 몇해가 지나 그 곳에서 쏟아질 《검은 금덩어리》는 공업의 식량으로, 각종 화학 제품의 원료로, 주택들의 연료로써 인민 생활 향상에 그 얼마나 큰 리익을 줄것인가!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늘 높이 솟아오른 검은 석탄산 앞에서 어엿한 탄광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쌓아 올린 건설의 탑을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볼 것이며 또 그것을 우리의 벗들에게 자랑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다. 지금 나의 눈 앞엔 그날의 정경들과 아름다운 탄광 도시의 풍경이 그림처럼 선하게 떠오른다. 그러면 나의 가슴은 어느덧 미래에 대한 랑만과 환희로 하여 들끓는다.

뭇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보람차고 가치있는 일이 또 어데 있겠는가! 사람이란 자기들의 땀으로 창조한 것을 바라볼 때 무한히 행복한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자기의 청춘과 지혜와 재능을 깡그리 바치리라! 새 현실 속에서 자기의 기술을 더욱 련마하며 로력 혁신자가 되리라!

지금 송남으로 가는 나의 가슴엔 희망도 많고 포부도 크다. 용감한 선발대를 실은 처녀지에로의 렬차여! 어서 빨리 고동을 울리라!

교통성 서평양 건설 사업소
운전공 리 용건

힘껏 일하겠다



나는 새로 개발되는 송남 청년 탄광으로 떠나는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나라 연료 기지를 우리의 손으로 개발하여 공업의 요구와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큰일의 첫 돌격대의 한사람으로 참가하는 것이 어찌 영예롭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선 로동당의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당은 언제나 청년들에게 애국적 헌신성을 다하여 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청춘의 정열을 오로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바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실로 우리 청년들은 당의 이러한 기대와 두터운 배려밑에 공장이나 농촌을 비롯하여 가는 곳 마다에서 있는 지혜와 성의를 다하여 당을 받들어 인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튼튼히 이바지 하였고 더욱 굳세여졌습니다. 오늘 당은 우리 청년들 앞에 또하나 크고 무거운 임무를 맡겨주었습니다. 나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송남으로 떠나가는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빛나는 탄광 건설 공사에서 누구 한테나 못지 않게 마음껏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녀지를 개발하여야 할 우리 앞에는 적지 않은 난관들이 있을 것을 각오합니다. 지난 기간에도 그랬듯이 나는 언제나 당의 신뢰와 기대에 충실하여 이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새 개발지로 떠나면서 나는 쏘련 공청원들이 처녀지 개간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몇천리 머나면 낯설은 지역에서 심한 추위와 비 바람을 무릅쓰고 깊은 진창을 이겨 가면서 잡초만이 무성한 황량한 처녀지를 개간하고 그 우에 밀밭을 가꾸고 철도를 부설하고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는 등 행복한 새 살림을 꾸린 그들의 줄기찬 모습은 나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도 밤나무, 배나무 우거진 산기슭을 따라 맑은 시내'물 흐르는 저기, 송남 지구에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찬 웃음꽃 피여날 새 탄광 마을을 꾸리기 위해 어떠한 힘든 고개라도 기운차게 넘으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열성을 오로지 새로 개발되는 탄광 공사에 바쳐 당과 인민의 기대에 충실히 보답하려고 합니다.

평양 전기 기계 공장
전기 기구 직장
조립공 진 창빈

젊은 벗들에게

(송남 청년탄광 건설에 떠나는)

김 경 일

그대들은 가누나
산 좋고 물 맑은 송남 땅—
평남 북부 탄전의 처녀지를 찾아서

옛날엔 생각도 못 했으리,
  이런 영광을
왜놈의 채찍에 등'살을 맞으며
피눈물 속에 갱도로 들어 가던
  그때엔…

정녕 그때엔 누구도 믿기
  어려웠으리,
그대들이 이처럼 들끓는 청춘의
  노래에 싸여
그뉘 아닌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청년탄광 건설에 떠나리라고는

아, 새 탄부! 그대들은 가누나
민청 4차 대회 결정 불씨처럼 안고
당이 준 청년 돌격대의 자랑도 높이

우리 벌써 력력히 듣는것만 같구나.
기'발을 추켜든 그대들 팔뚝에서
지하 천척 탄심을 울리며
물처럼 흙밥이 쏟아지는 소리를

우리는 눈앞에 보는 것만 같구나
련방 웃음이 꽃 피는 그대들의
  얼굴에서
흰 구름 떠도는 송남의 하늘 높이
줄지어 쌓여지는 버럭'더미의 산들을

그대들은 대자연을 정복하는 투사!
허나 그대들에겐 노상 난관이 따르리
때로는 사나운 비'바람이
일터를 휩쓸기도…

그렇지만 우리는 믿노라.
그대들의 로력 빛나는 열매를
  맺을 것을
그대들이 손'금마냥 탄맥도를
  휘어 잡고
갱도의 중압을 튼튼히 받들고
  나갈 때

그대들의 앞길은 휘황히 밝으리라!
전쟁을 박차고 평화의 봄을 누릴
조국의 미래는 찬연하리라!



증오의 불벼락



—대전 전투를 회상하면서—

공화국 영웅 근위 소위 조 종 대

1950년 7월 16일 오후 일곱 시였다. 공주 계선의 저녁 노을은 승리를 축하하며 또 예고하는듯 붉은 기'발처럼 온 하늘에 황홀하였다.

록음이 싱싱한 향기는 우리들의 폐부에 생기를 넣어 주었다.

근위 18련대는 대전에서 포위된 미군 24사의 퇴로를 차단하고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소멸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받자 곧 의기 충천하여 행군을 시작하였다.

우리 분대는 척후대로 앞장을 섰었다.

금산 도로를 점령할 목적으로 우리는 걸음을 다우쳤다.

공주로부터 목적지까지는 65키로는 잘 되였다.

척후대로서 앞장을 선 우리들은 장구하나 빠짐 없이 갖춘데다가 무거운 배낭까지 지고 반 구보로 긴장한 가운데 전진하였다.

밤으로 가는 길이라 신호 조직을 엄수해야하며 열'기 오른 눈으로 주위를 살펴야 했다.

행군에도 기적은 있는 법이라 군인들은 오직 증오의 불벼락을 안길 그 일념에만 불타고 있어서 괴로움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였다.

목적지까지 한 8키로쯤 남았으리라고 짐작되였을 때에는

벌써 먼 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나는 소 휴식을 리용하여 분대 성원들을 고무하였다.

《…거의 왔소. 끝까지 견디오. 불벼락을 안길 때가 왔소》

앞을 내다 보니 낮으막한 야산이 있었다. 소나무, 가둑나무 그리고 나무 줄기가 희끗희끗한 잡목들이 들어 서 있어서 은신하기에 좋았다.

산 기슭에 당도하였을 때였다. 《적 발견》하는 신호가 왔다. 나는 적정을 전달하고 산꼭대기에 뛰여 올랐다. 행군이 늦어지지나 않았는가 하여 조바심하면서 살펴 보니 대전쪽으로부터 반트럭 세 대가 질풍같이 달려 오고 있었다. 늦지는 않았다.

역시 선두 척후였다.

그런데 나의 눈을 세모지게 한 것은 세 대의 반트럭에 쉬여 있는 빛다른 색갈이였다. 그것은 분홍 혹은 노랑 저고리들이였다. 똑똑히 살펴 보니 그것은 다섯 명의 조선의 처녀들이였다.

나는 순간 이가 부드득 갈렸고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얼마나 악독한 원쑤들인가》

저 처녀들이 어찌 나의 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트럭은 우리 앞에서 문득 멎어 버렸다. 어쩌자는 수작일가? 우리를 발견하지나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놈들은 후다닥 후다닥 뛰여 내리드니 처녀들을 마구 끌고 맞은편 산수림 속으로 들어 가고 있었다. 처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였다. 놈들은 약 25명 가량 되였다.

바로 이 때 김 택진 중대장은 놈들을 포위할 것을 명령하였다.

우리 분대는 우익에서부터 불을 뿜으며 육박하였다.

놈들은 불의의 습격에 당황실색하여 재빨리 처녀들을 쏘아 죽이며 우리에게 대항하였다.

우리들은 용서 없이 놈들의 대가리에, 가슴팍에 불벼락을 박았다. 한 놈도 살아 남은 놈은 없었다.

이 때 형편이 이렇게 된 줄은 모르고 뒤따라 오던 놈들의 후속 부대가 급히 되돌아 서서 대전 쪽으로 뺑소니를 치고 있었다.

부대장은 곧 대구행 도로를 점령할 것을 명령하였다. 우리 분대는 또 다시 앞장에 서서 내달았다. 해는 이미 솟아 올라 찌는듯한 염열을 뿜어대고 있었다.

한 야산에 기여 올랐을 때였다. 벌써 적 전차 한 대가 내달리고 있었다.

이에 실망한 나는 도로를 횡단하여 빈 집에 매복하려고 결심하였다.

놈들은 행길에 들어 선 우리를 발견하자 포화를 퍼붓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는 쏘구역을 돌파하게 되였다.

우리는 포탄 구덩이마다에 은신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데 성공하였다.

나는 새로 접수한 대원들을 여섯명만 데리고 빈 집채에 매복하였다.

놈들은 우리가 다 소멸된 줄 알고 전차들을 선두로 달려 오고 있었다.

놈들의 선두 전차가 바로 집앞에 당도하였다. 나는 습격신호를 주면서 자동차에 탄 놈들을 후려 갈겼다. 그랬더니 맨 끝머리 집에 매복한 김 광수 동무가 반전차 수류탄을 던졌다. 명중되였다. 무한 궤도가 끊어진 적 전차는 질주하던 탄력에 의하여 핑그르르 돌면서 한 길을 가로 막아 놓았다. 잘 되였다.

그러자 나도 적 전차 한 대를 파괴하였고 부분대장 림명택 동무도 한대를 까 부시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놈들의 퇴각로는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분대의 일체 화력은 일대 혼란에 빠진 놈들의 서렬에 우박처럼 집중되였다. 통쾌한 전투였다.

우리도 한창 싸우다 보니 집채가 불에 타면서 무너지는 바람에 나는 어디에 얻어 맞았는지 잠시 얼떨떨 하였다. 그런데 신대원들도 가만히 은폐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들은 연신 수류탄을 날라 왔고 용기 백배하여 싸우고 있었다.

전우들은 부상되였다. 누군가 피를 걸어 안고 쓰러졌었다. 순간 나는 더욱 격분이 치밀어 올라 적들 속에 마구 뛰여 들었다.

증오의 불벼락을 마음껏 안겼다.

전투가 끝나면서 알아 보니 놓쳐 버린 렬차도, 전차도 3중대 동무들에 의하여 보기 좋게 소멸되였다는 것이였다. 참 언쳤던 것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직도 미 제국주의자들은 저 군사 분계선 넘어에 들어 백혀 력사의 교훈도 잊어버리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

만약 놈들이 어리석게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여 불장난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길에서 놈들을 처단할 것이다. 그때에는 두 번째 패전의 운명을 맛보게 할 것뿐이다. 증오의 불벼락으로!

격 침

——공화국 영웅 량 태현 비행사의 전투기——

황 해 성

1950년 7월이였다. 한강을 도하한 아군 부대들은 원쑤를 휘몰아 남으로 전진하고 있였다. 인민군 부대들이 한강을 도하한 이틀후 량 태현 비행사는 애기를 조정하여 아군의 남진을 엄호하라는 명령을 받고 동료기들과 같이 날고 있었다. 이미 한강 도하시에 아군 지상 부대들의 도하를 엄호하여 적의 수다한 포와 전차 진지들을 폭격한 일이 있는 낯익은 한강을 지나 수원 비행장 상공에 이르렀을 때였다.

태현은 좌측 날개 밑으로 평택 방향으로 뻗친 도로에 긴 배암의 끄리처럼 적들의 퇴각 서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적의 퇴각 서렬은 약 4키로 가량이나 되는데 자동차들도 섞여 있는 것이였다. 태현은 긴장하여졌다. 《개놈들 어디 보자! 몇 놈이나 살아 남을 줄 아느냐!》 혼자 웨치는 순간 그는 레시바를 통하여 귀에 익은 련대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따라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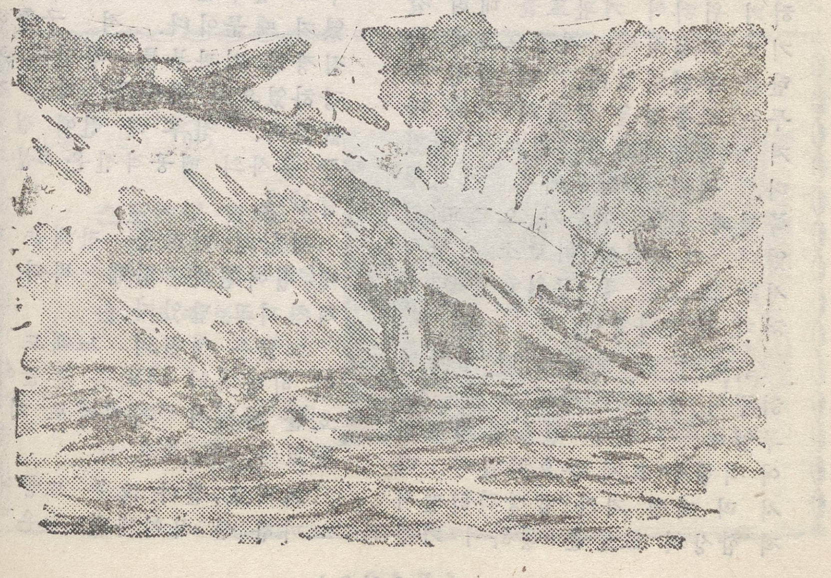
태현은 숨을 들이키면서 흥분을 억제하려고 애쓰면서 주도기를 주시하였다.

그는 주도기를 따라 적의 퇴각 대렬의 끄리로부터 선두를 향하여 저공 대지 사격을 퍼부었다. 순식간에 적의 퇴각 대렬은 수라장이 되였다. 그는 다시 상승 고도를 취하여 한 바퀴 선회한 다음 적의 대렬을 향해 재 진입하면서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렇게 전후 여덟 번이나 적의 무리 속에 진입하여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기지에 돌아 왔을 때 그의 전우들은 비행기를 보고 놀랐다. 그것은 비행기 라지에타에서는 물이 뿜어 나오고 있었으며 무선 안떼나는 몽땅 끊어졌고 날개와 미부가 수 개소나 적탄에 관통되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현이는 조금도 부상당한 곳이 없었다. 전우들은 그의 용감성과 침착성에 감탄하면서 《용감한 사람 앞에선 탄환도 피해 간다이…》 하고 말들 하였다.

청소한 우리 항공병들의 투쟁 력사에서도 보기 드문 놀라운 전투는 1950년 8월 22일에 인천 근해에서 있었다. 리 재선, 량 태현 비행사들이 두대의 편대로써 적 구축함을 격침시킨 사실이 그것이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기적을 알지 못한다. 이 전투야말로 용감성이 기적을 낳은 싸움이였다.

1950년 8월 22일 이른 아침에 련합 부대장은 리 재선 주도기와 량 태현 대렬기에 출공 명령을 하달하였다. 용약 기지를 가볍게 리륙한 그들은 항로를 서해안으로 잡았다. 인천 부근에서 적 함선을 포착 섬멸하라는 전투 명령이였었다. 그들은 부대장으로부터 받은 보충적 지시를 념두에 아로새기면서 연구하였다. 만약에 항공모함이라도 발견된다면 활주로를 완전히 파괴할 결의에 불탔다. 기지를 떠나 비행한지 얼마 되였다. 이른 새벽의 려명은 희미하였고 해상은 얇은 운무로 하여 약간 흐려 있었다. 티적군도 상공에 이르러 적을 찾아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목표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한 가운데 몽롱한 바다만 지키면서 안타까움과 격분에 잠긴채 서쪽으로 약 2분간 더 항로를 잡았다.

조국과 인민이 원쑤를 갚아 달라고 맡겨 준 폭탄을 다시



가지고 돌아 올 수는 없었다. 적함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기수를 돌려 다시 적함을 찾아 보려 할 때였다. 약 4키로 남쪽에 하얀 수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두 용사는 각각 속으로 《적함 발견》이라고 웨쳤다. 그것은 틀림 없이 인천을 향해 달려 오고 있는 적 구축함이였다. 그 순간에 두 용사의 높뛰는 가슴을 형언할 바 없었다.

고도 1,400메터를 잡은 두 비행기는 적함에 접근하자 주도기가 먼저 급강하 하였다.

놈들은 저희들의 항공기인 줄 알았는지 아무런 대항도 없었다.

이때에 주도기는 놈들을 위압하기 위하여 기관포를 내리 갈기고 모험적인 저공으로써 폭탄을 투하하였다. 리 재선 동무는 조종간을 급격히 잡아 당겨 급상승하면서 결과를 살폈다. 적함 중심부에서 시커먼 폭연과 함께 수주가 오르고 있었다. 그때에야 비로소 적함에서는 포문을 총 동원하여 란사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량 태현 기가 급강하하면서 우선 두 발의 폭탄을 퍼부었다. 두 발은 선수에 명중되여 적함은 크게 동요하였다. 다시 리 재선 기가 급강하하면서 적 함상의 포들을 향하여 기관포 사격을 감행하였다. 위기의 순간 순간이였다. 말하자면 적 포탄들의 시뻘건 불 사이를 헤치고 감행하는 기습이였다. 이때 량 태현 기가 급강하하면서 나머지 명중탄을 쏟아 부었다. 량 태현 동무는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비행기 미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명중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저공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모르기는 해도 적함의 연통 속에 투입되였다고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 하면 적함으로부터는 검붉은 폭연이 하늘 높이 치솟았으며 지금까지 지그자그형으로 항로를 잡으면서 아군의 습격을 면해 보려고 발악하던 적 구축함이 기동을 멈추고 선수를 바다 속으로 기울였기 때문이다. 적 구축함은 심장인 기관부를 완전히 파괴당하였으며 침수를 막을 길이 없었다. 전후 네 번에 걸치는 두 용사의 맹공격전은 6분간에 끝났다.

적함의 더러운 잔해는 화염에 휩싸인채 황해 바다 깊이 격침되고 말았다.

그들은 개선의 노래도 드높이 비행기의 나래를 흔들어 신호를 하면서 기지에로 기수를 돌렸다.

기지로 돌아 오는 도중에 자그마한 섬 사이에서 작은 목표

를 발견하였다.

두 비행사는 해상으로 낮게 비행하다가 적의 소해정임을 확인하였다. 주저할 필요는 없었다. 량 태현 기는 이에 접근하여 기관포로 명중 사격을 가하였다. 리 재선기는 선회한 다음 나머지 폭탄을 퍼부었다. 작은 소해정은 해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거듭되는 전과로 환희에 넘친 그들은 다시 00기지에로 항로를 잡았다.

위험 신호를 날린 적함을 구해 보려고 적 비행기들이 추격하여 왔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미 우리의 영웅기들이 기지에 은폐되였을 때였다.

이렇듯 용감 무쌍한 전투는 우리 공화국의 항공 사상에 김기옥, 리 동규, 태 극성, 리 문순 영웅들의 전투 승리의 기록과 함께 길이 빛날 것이다.

조국은 리 재선, 량 태현 두 항공 용사들에게 공민의 최대의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공화국 영웅 량 태현 동지의 수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씌여 있다.

《나는 가증스러운 적 구축함을 수장하던 날을 잊지 않는다. 그날 적 구축함이 침몰된 수면에는 어지러운 기름이 떠돌고 노한 파도가 춤추고 있었다. 간신히 살아 남은 저주할 해적들은 물 우에서 허위적 거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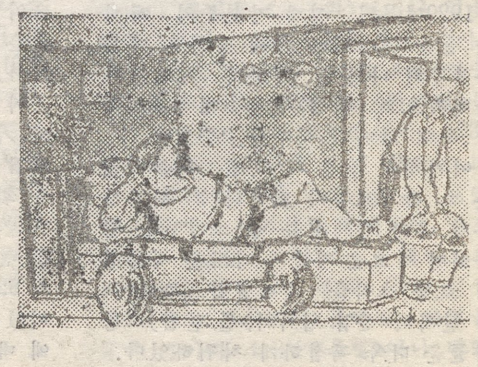
원쑤 미제 침략군들아, 피묻은 침략의 검은 마수를 또 다시 우리 조국에 뻗친다면 어느 때, 어데서든지 네놈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유)(모)(어)

스포츠의 효과

——아유, 애야, 이 초롱은 내 팔을 쑥 빼는구나!

——훈련해야 돼요. 어머니, 훈련을요.





김 창 묵

금년 7월로써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반일 해방 투쟁 사상에서 찬란한 한 페지를 차지하는 단천 농민 폭동 27주년을 맞이 한다.

단천 농민 폭동은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에 고무된 조선 로동 계급의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적 진출의 영향밑에 1930년 7월에 일어났다.

1929년부터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휩쓸기 시작한 경제 공황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에 비하여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본 제국주의에게 특히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여기에서 일본 대 독점 자본가들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 나라 안에서는 중 소기업을 합동하여 새로운 기술과 기계를 적용하며 로동 조직을 재편성함으로써(소위 일제의《산업 합리화》를 말함) 로동자들을 더욱 혹심하게 착취하였다. 이러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대륙 침략의 전쟁 계획과 함께 조선에 대한 식민지 략탈을 일층 강화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조선 인민들의 생활 처지는 점점 더 악화되였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의 반제 반봉건 투쟁을 새로운 규모에서 더 힘차게 앙양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경제 공황과 관련된 조선 로동 계급의 파업 투쟁에로의 첫 대중적 진출은 1929년 1월의 원산 제네스트이다.

이 파업은 외래 식민지 략탈자들의 가혹한 비인간적 착취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여 궐기한 라이징썬 석유 회사 문평유조소 200여 명 로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한 원산 로동 련합회 산하 2,000여 명 로동자들의 82일간이나 걸친 영웅적인 총 파업이였다. 이 파업을 신호로 하여 이 해에 대전 제사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인천 정미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등 대소 102건의 파업이 일어났다.

1930년에 들어 서면서 파업은 계속 부산 방직 공장에서의 2,000여 명 로동자들의 파업을 비롯하여 신흥 탄광 로동자 폭동 등 전국 각지에서 더욱 더 대 규모적으로 완강하게 일어났다.

이와 같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은 농민 대중을 각성시켰으며 그들을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 불러 일으켰다.

1929년도에 있은 무수한 농민 운동 가운데서 대 규모적이며 중요한 것만 하여도 1929년 9월 경남 김해군 진영면에 있는 일본인 경영의 박간 농장에서 일어난 1,200여 명의 조선인 소작 농민들의 소작쟁의, 또 함남 고원의 동척 농장에서 2,000여명의 소작 농민들이 고률의 소작료를 반대하여 일어난 투쟁, 이해 1월에 일어 난 평북 룡천군 불이농장 2,000여 명의 소작쟁의, 동년 12월에 일어난 경북 경산에 있던 조선 토지 흥업 주식회사 농장 2,500여 명 농민들의 투쟁 등이 있다.

1930년에 들어 서면서 농민들의 투쟁은 더 급속하게 장성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축소된 통계에 의하여 보더라도 1929년도 대소 소작쟁의는 423건이나 되는데 그의 참가자들은 5,319명이다. 그런데 1930년에 들어와서는 그 건수는 726건에 참가자는 13,000여 명으로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욱더 완강하고 적극적인 투쟁 형태인 폭동에로 넘어갔다. 1930년도에 있은 이와 같은 농민들의 투쟁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천 농민 폭동이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그 어느 곳보다 풍부한 단천의 지하 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100여 개의 광구(鑛區)를 설치하고 금, 은, 철, 류화철, 아연, 마그네사이트, 코발트 등을 대량적으로 략탈하였다. 이러는 한편 농촌에서는 《토지 개량》이니, 《산미 증식》이니 하는 구실로 농민들의 땅과 로력을 무상으로 략탈하여서는 남대천 수리 조합을 비롯하여 수개의 수리 조합을 단천군내 각지에 만들어 놓고는 《관개 사용료》, 《수리 조합비》니 하는 따위들을 엄청나게 강제 징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잠업을 장려한다고 떠들면서 화전 농민으로부터 수다한 경지를 빼앗아 상전(桑田)을 만들고는 이에 의하여 생산된 잠견은 소위《공동 판매》라는 미명하에 강제 수탈하였다. 또한 금융 조합을 통하여 《토지 개량비》나 《농업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구실로 고리대금을 하고는 그 빚값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대량적으로 수탈하였다. 특히 림산(林山) 자원에 대한 강탈은 심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1911년 6월 소위 《산림령》을 발표하고 842만 9,000여 정보의 산림을 략탈하였는바 단천에서도 군내의 근 40%나 되는 94,000여 정보의 산림을 《국유화》하거나 일본 재벌 《스미도모》와《동양 척식 회사》에 불하(拂下)의 형식으로 소위《면유림》, 《부락림》, 《보안림》, 《학교림》등 등의 명목으로 략탈하였었다. 1930년대에 들어 서서는 이런 략탈이 더욱 심해져서 얼마 남지 않은 개인 사유림 마저 자기들의 통제하에 넣기 위하여 《산림 조합》을 강제적으로 조직하여 가지고는 경사 25도 이상의 림야는 개간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국유림》이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출검불하나 얻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인민들의 생활

필수품인 신목 생산에 막대한 위협을 주었으며 화전민들의 동기 부업인 신탄(薪炭)생산을 금지함으로써 그들의 생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농민들이 이에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산림 보호령》 위반이라 하여 취제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도벌》, 《란벌》이란 실로 부당한 루명을 씌워 벌금을 징수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비참하였고 전체 농가의 60~80% 이상이 겨울이 지나기도 전에 절량되여 칡 뿌리와 나무 껍질로 겨우 연명하던가 이것마저 없어서 몸이 뚱뚱 붓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겼다. 그리하여 살다 못해 북간도로, 일본으로 류랑걸식의 길을 떠나는 사람도 많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이와 같은 가혹한 착취와 억압으로 말미암아 기아와 빈궁과 박해속에서 살 수 없게 된 단천 농민들은 자기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드디여 1930년 7월 략탈자들을 반대하여 궐기하였다.

1930년 7월 10일 단천군 하라면에 배속된 산림 간수가 련대리 허 달규 농민이 누에를 올리려고 애동 나무나 가랑 나무 몇대 해온것을 발견하고 《산림 보호령》 위반이라 하여 그의 부인을 취제 구타하였다. 이 사실을 안 련대리 농민들은 그 간수의 비행을 추궁하였다. 오만 무례한 간수는 이에 불응하고 이 사실을 군청에 보고하였다. 일제놈들은 7월 18일 일본인 군속과 수명의 산림 간부를 련대리에 파견하여 가지고는 하라면 주재소 경찰과 합세하여 사실의 전말을 조사한다는 구실하에 다시 련대리에 와서 농민들의 가택을 수색하였다. 그러던중 설 봉손 농민의 집에서 다시 몇단의 나무를 발견하고 역시《산림 보호령》위반이라는《죄명》으로 그를 면 사무소에 끌고 가서 혹독하게 취조한후 감금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행과 략탈에 불만을 품고 있던 농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분개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관려들의 폭행에 항거하여 면 사무소로 달려 들었다. 삽시간에 집결된 300여 명의 군중들은 《산림 조합》의 해체와 《산림 보호령》을 반대하는 군중 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관계자들과의 담판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의 정당한 요구 조건은 일본 제국주의의 관리들에 의하여 무시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



만하려 놈들은 위협과 공갈로써 군중들을 제압하려 하였다.

오만 무례한 일본 제국주의 관리들의 행동에 격분한 군중들은《그 놈들을 때려 죽여라》라는 함성과 함께 면 사무소와 주재소를 습격하여 이를 파괴하고 산림 간수, 면 사무소 직원 및 경찰관을 때려 눕히였다.

폭동에 궐기한 농민들은 련대리 일대를 시위한 다음 만세와 승리의 개가를 높이 웨치면서 그 길로 군 소재지인 단천읍으로 향하였다. 련대리 사건과 함께 폭동 군중들이 단천읍을 향해 쳐들어 간다는 급보를 받은 단천 경찰서는 수명의 무장 기마 경관을 선두로 40여 명의 무장 경찰대를 동원하여 하라면으로부터 단천읍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폭동 군중들의 행렬을 총 칼로 제지하였으며 련대리 일대를 포위하고 가가 호호를 수색하여 50여 명의 농민을 검거 투옥하였다.

이에 격분한 련대리, 백상리, 고읍리, 직정리 농민 400여 명이 7월 19일 삼엄한 무장 경관의 경계망을 돌파하고 단천 군청 앞에 집결하여 검거자들의 즉시 석방과 《산림 조합장》인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단천 농민 폭동의 발단인 련대리 농민 폭동이였다.

련대리 사건 진상은 순식간에 린접한 면을 걸쳐 군내 각지로 퍼졌다. 인민들의 반일 기세는 절정에 달하였다. 7월 20일 새벽부터 군내 각지 농민들은 련대리 농민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단천읍으로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농민들은 궂은 비 내리는 불순한 일기와 경찰대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의기 양양하게 단천읍에 모였다.

한 자리에 집결된 2,000여 명의 군중들은 단천군 농민 동맹의 조직 지도하에 군중 대회를 개최하여 《피검자들의 즉시 석방》,《산림 조합의 즉시 해채》,《가렴 잡세의 철폐》등 3개 요구 조건을 제기할 것을 결정하고 20일 오후 한시—서울행 급행 렬차의 단천역 도착을 알리는 기적소리와 함께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웨치면서 군청앞 광장에로 몰켜 들었다. 시위자들은 질문 위원을 선출하여 해당한 요구 조건을 군수에게 전달하고 그에 응락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였으나 군수는 이 요구 조건을 전반적으로 거절하여 나섰다.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가 거절당한 시위자들은《우리가 모두 들어가 해결하자》,《군수 놈을 끄집어내라》,《때려부수어라》는 함성과 함께 노도와 같이 군청안으로 몰켜 들어 갔다.

폭동 군중들은 군 청사를 파괴하고 공문서를 찢어 버리며 관리들을 체포 처단하였다. 이리하여 순식간에 군청은 폭동 군중들에 의하여 점령되였다. 군청을 자기 수중에 장악한 폭동 군중들은 련이어 경찰서를 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곤봉과 돌 등으로써 무장 경찰대에 항거하여 용감히 싸웠다. 녀자들은 함지와 치마폭에 돌을 담아 섬기는 등 남녀로소가 한몸이 되여 싸웠다.

일본 제국주의 경찰은 자기들의 모든 무장력을 총 동원하여 밀려드는 군중들에게 일제 사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폭동 군중들은 비'발치듯한 총탄을 무릅쓰고 진공을 계속하였다. 련대리 청년 김 윤용은 놈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 《일제를 타도하라. 모조리 부셔라》고 웨치면서 폭동을 고무 격

려하였으며 하라면 가원리 김 득수 청년은 군청 습격을 끝마치고 경찰서 습격을 향하는 도중 길을 막는 경관과 격투 끝에 총을 빼앗아 꺾어 버리고 경찰서로 계속 뛰여 나가다가 그 문전에서 원쑤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이렇게 당일 원쑤들의 총탄에 의하여 17명의 애국 투사들이 장렬한 희생을 당했으며 30여 명이 중상당하였다. 폭동 군중들은 원쑤들의 총탄에 의하여 쓰러진 동지들의 시체를 넘으면서 원쑤들과 피의 격투를 계속하였다.

한편 홍수로 도로가 절단되여 폭동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 북대천 일대의 농민들은 적들의 전화선을 절단하여 그들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등 투쟁에 합세하였으며 군내 각지에서는 군중 시위로써 이를 성원하였다.

그러나 곤봉과 돌과 같은 원시적 도구로써 무장한 우리 폭동 군중들이 어마 어마한 현대 무기로 무장된 일제 경찰대들을 도저히 이겨 낼 수는 없었다.

원쑤들은 군대 및 경찰대의 응원을 받아 방비 없는 군중을 비참히 학살하였으며 단천을 비롯하여 군내 각지에서 1,000여 명의 선진 농민들과 20여 명의 동맹 간부들을 검거 투옥하는 등 야수적인 탄압을 계속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단천 농민 폭동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반일 투쟁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 올랐다.

이와 같이 단천 농민 폭동은 우리 나라의 농민 운동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대 규모적인 혁명적 폭동으로서 그후 1930년대 홍원, 영흥, 문천, 북청, 성진, 길주, 명천 등 함남북도 일대와 국내 각 지에서 계속 일어난 반일 농민 폭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천 농민 폭동을 통하여 1930년대에 이르러 조선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특히는 농민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함이 없이는 자기의 처지를 개선할수 없으며 노예적 생활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농민들은 자기들의 투쟁 대렬을 강화하면서 더욱더 높은 조직성과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원쑤들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런 일은 없애자! 그림. 원광수



계급이란 무엇이며 계급 투쟁은 왜, 어떻게 진행되는가

김 상 길

해방전 조선이나, 오늘날 공화국 남반부, 일본, 미국 등에 있는 자본가들과 로동자들, 지주들과 소작 농민들을 두고 보자.

첫째로 자본가, 지주들은 공장, 광산, 토지, 자금 등 모든 생산 수단을 다 소유하고 있지마는 로동자들과 소작 농민들은 생산 수단을 전혀 못 가졌거나 거의 못 가지고 있다.

둘째로 자본가, 지주들은 그 사회의 지배자들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로동자, 농민들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서 사실상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세째로 물건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로동자, 농민들은 직접 로동하지마는 자본가, 지주들은 로동을 하지 않는다.

넷째로 로동자들은 임금으로써, 소작 농민들은 소작료를 바치고 난 나머지로써 자기들이 생산한 물자중에서 극히 적은 몫 만을 받을 뿐이고 자본가, 지주들은 생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자들, 자본가들, 소작 농민들, 지주들은 각각 생산 수단의 유무, 사회적 지위, 생산에서의 역할, 생활 처지 등 서로가 다른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집단을 계급이라고 한다.

사회의 주민들이 이러한 계급들로 분렬되는 것은 토지나 공장, 광산 등 생산 수단을 일부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이 생산한 것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 즉 겨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만한 부분을 임금으로써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자기들이 빼앗아 가지는데 이것이 곧 착취이다.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생활도, 영업도 해 나갈 수 없다. 자본가들이 부자가 되면 될 수록 로동자들은 빈곤해지고 실업자는 늘어 간다. 자본가들과 로동자들의 리해관계는 적대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로동 계급이 기본 계급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농민 계급이 있고 지주 계급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농민들은 부농, 중농, 빈농, 고농 등 사회적 처지와 생활 조건과 리해 관계가 조금씩 다른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진다. 부농은 자기도 로력하지마는 남의 로력까지 착취하는 부르죠아적 계급이며, 빈농은 반(半)프로레타리아적 계급이며, 고농은 농촌에서의 프로레타리아적 요소이다. 그러나 부농까지도 포함한 전체 농민들이 다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지주와 리해 관계가 대립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농민 계급을 이룬다.

봉건 사회에서는 지주—귀족들과 농노들이 기본 계급이였고, 노예 사회에서는 노예주들과 노예들이 기본 계급이였다. 어느 계급 사회에서든지 기본 계급들 이외에 이러 저러한 비기본 계급들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주들과 농민들, 도시 소부르죠아들은 비 기본 계급들이다.

오늘 사회주의 사회, 인민 민주주의 사회에는 자본가, 지주들은 없어졌거나 혹은 기본적으로 없어졌다. 그러나 로동자들과 농민들은 남아 있다. 이들은 계급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마는 계급 사회에서 착취 받고 무권리하던 원래의 계급들과는 전연 다른 계급들이다.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란 완전히 없어지고 사람들이 기계화된 공장에서 일할 때와 기계화된 농장에서 일할 때 일터에서의 약간의 차이만이 남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계급이 없는 것과 같이 노예 사회 이전 즉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도 계급은 없었다. 원시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로동 생산성, 따라서 사회의 생산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로동하고 맹수들이나 외적으로부터 공동으로 방위하지 않으면 살아 나갈 수가 없었다. 따라서 토지나 로동 도구들은 공동의 소유로 되여 있고 부자와 빈자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로동 생산성이 높아져서 일부 사람들만이 로동하여도 사회의 전체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살아 나갈 수 있게 되였을 때 한편으로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리 사업, 보위 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에는 사람들의 기능과 그들의 처한 환경에 따라 분업이 발생하였다.

원시 사회의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 종족, 한 씨족이 한명어리로 되여서 공동으로 로동하여 공동으로 나누어 먹고 살던 것이 후에 와서는 매개 가족들이 점차 따로 따로 살게 되여 생산 활동도 따로 따로 하고 자기의 로동의 결과는 자기가 소유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니 토지, 로동 도구 등 생산 수단도 점차로 매개 가족이 따로 따로 소유하게 되여 사유 재산 제도가 발생하였다. 사유 재산 제도가 발생하니 점차로 부자와 빈자가 생기게 되였다. 외적과의 싸움에서 공로 있는 사람들과 부자들은 생산 수단을 많이 가지게 되고 아무런 생산 수단도 못가진 빈자들과 포로들을 노예로 삼을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력사상 최초의 계급들인 노예 소유자 계급과 노예 계급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노예 소유자들, 봉건 지주들, 자본가들은 모두 다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예들과 농노들과 로동자들을 착취하여 호화롭게 살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착취자 계급은 근로자 계급을 자기에게 온순하게 복종시키며 그들의 반항을 진압하고 착취 제도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하여 군대, 경찰, 감옥 등 폭력 장치를 가진 국가를 만들어 내였다.

사람이 사람을 압박할 필요가 없었던 원시 사회에서는 국가도 없었다. 국가는 노예 사회로부터 발생하였다. 착취자 계급은 자기가 국가의 주인으로 됨으로써 피착취 계급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착취한다.

계급 투쟁이 왜 일어 나는가 하는 것은 명백하다. 피착취 계급은 착취 계급을 반대하여 싸우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비참한 지경에서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이며 착취 계급은 피착취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죄악적인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대 노예 사회에는 노예주들을 반대하는 노예들의 태공과 폭동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노예 사회는 노예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전복되였다. 중세기 봉건 사회의 력사도 지주—귀족들을 반대하는 농노들의 폭동으로 가득 차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력사도 자본가, 지주들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으로써 충만되여 있다. 때문에 맑스는 인류의 력사는 계급 투쟁의 력사라고 말하였다.

계급들과 계급 투쟁이 가장 발달한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계급 투쟁은 경제 투쟁, 정치 투쟁, 사상—리론 투쟁 등 여러가지 형식을 띄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투쟁이며 정치 투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 폭동이다. 왜냐 하면 정치적

파업,시위,폭동 등 정치 투쟁이 계급 투쟁의 결말을 짓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대체로 무장 폭동이 계급 투쟁의 결말을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 세력이 썩 강대하여 적들이 무력으로써 반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장 폭동이 없어도 혁명은 승리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이러한 가능성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계급 투쟁에서의 판가리로 되는 것은 혁명이다. 봉건 귀족들과 봉건 제도를 전복하는 것은 부르죠아 혁명 또는 민주주의 혁명이다. 부르죠아지와 자본주의 제도를 청산하고 착취없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계급 투쟁과 그것의 결말로 되는 사회주의를 담당하는 것은 오직 로동 계급이다. 로동 계급은 오늘날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다.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은 인류 사회에서 대립하는 마지막 계급들이다. 로동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면 인류 사회에서 착취 계급이란 아주 없어진다. 따라서 로동 계급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자신을 해방하는 동시에 압박받는 모든 근로자들을 해방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인류를 해방하는 것—이것은 로동 계급의 위대한 력사적 사명이다.

로동 계급은 이 력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로동 계급이 완전한 무산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철저하게 혁명적이고 또 분산적인 농민들과는 달리 큰 공장이나 광산들에 집중되여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조직되고 단결될 수 있고 또 경제 생활에서 지도적 지배적 역할을 노는 공업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문화 기술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사회에 대하여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력한 계급인 까닭이다.

로동 계급은 또 자기의 계급 투쟁에 대한 지도 리론으로서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과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학으로 무장된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를 받을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과학은 로동 계급과 그의 당에게 계급 투쟁—혁명 투쟁의 법칙과 승리의 길을 가르쳐 준다.

오늘 우리 로동 계급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농민들을 비롯한 전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과 동맹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 즉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의 완수와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완수,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외래 제국주의의 식민지였으며 농촌에는 지주들-봉건적 소작 제도가 남아 있었다. 지주들과 봉건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계급 투쟁이다. 외래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민족 해방 투쟁이다. 그러나 이 계급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은 밀접하게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곧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이며 그들은 남반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반동적 예속적 부르죠아지 및 지주들과 결탁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들, 근로 인민들을 압박 착취하며 학대하기 때문이다.

오늘 조국의 통일 독립의 완수를 위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은 또한 국내의 예속 자본가들과 지주들을 반대하는 계급 투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또 전체 우리 인민은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지마는 미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특히 우리 로동 계급을 증오하며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증오하며 말살하려 한다. 따라서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것은 가장 심각한 계급 투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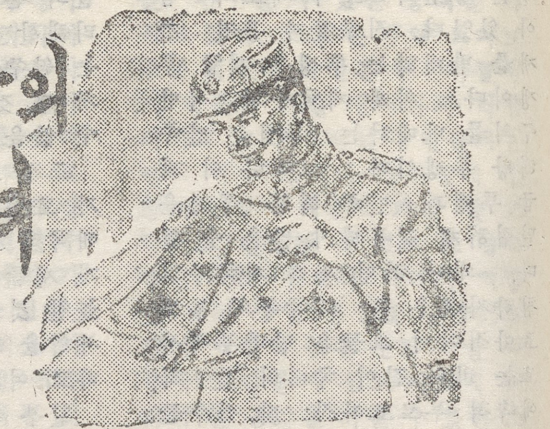
계급적 립장, 계급 투쟁의 립장에 서지 않고서는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역도들의 본질과 그 의도를 옳게 리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원쑤들을 면바로 칠 수 없게 될 것이며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로동 계급과 농민들, 전체 애국적 인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계급 의식, 계급적 각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일부 청년 학생들이 아직도 육체 로동을 천시하며 농촌이나 어촌에로 진출하는 것을 싫어 하며 국가 사회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여기고 애호할 줄 모르며 원쑤들에 대한 경각성이 부족한 사실들이 있는 것은 계급과 계급 투쟁에 대한 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청년들은 해방전에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압박과 착취를 경험해 본 일이 없거나 혹은 적기 때문에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과 각성이 약할 수 있다. 그러니 만큼 조국의 장래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 학습에 더욱 힘써서 계급 의식을 더욱 높이고 계급 투쟁,혁명 투쟁에 관한 법칙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이 하여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통일 독립 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더욱 빛나는 역할을 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강마을의 처녀



김 숙 만

저녁 자유 시간이였다. 병실들을 돌아 본 후 나는 소대부로 돌아 와서 방금 전에 도착한 신문을 펼쳤다. 일면에 실린 사설부터 시작하여 그 제목들과 내용들을 대강대강 훑어 내리던 나의 시선은 문득 제 3면 상단에 크게 실린 한 젊은 아주머니의 사진에서 박은 듯이 멎었다.

동그스럼한 얼굴에 정채로운 두 눈, 얄팍 하기는 하지만 꼭 다문 의지적인 입술, 커다란 국기 훈장 2급이 달린 매우 탄력적인 그의 동 가슴…

앗, 낯익은 얼굴이다. 그래서 나는 기사를 단숨에 내려 읽었다. 그 내용인즉 작년 정당 7톤 이상의 다수확을 거두어 국가로부터 표창받은 옥천'벌의 모범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겸 금주 동무는 올해도 가물과의 투쟁에서 새로운 창발성과 합리적인 로력 조직으로써 조기 작물의 피해를 극복하고 그 조합의 논밭에선 또다시 례년에 못지 않는 높은 수확을 거두리라는 것이였다.

순간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활활 타 올랐다. (아—금주, 금주 동무, 남강 마을의 용감한 청춘이여! 내 생명의 은인이면서도 6년 동안이나 그 소식 모르고 지났더니 이제야 알았고나! 동무는 그렇게도 용감한 처녀드니 오늘은 증산의 초소에서 또 로력의 위훈을 세우고 있군! 그 솜씨 어데간들 달라지랴) 그리하여 나의 추억은 어느덧 5년전의 남강반, 가렬처절한 전투의 날로 줄달음치는 것이였다.

× ×

1951년 9월 초순 우리 1중대는 남강 기슭 433 고지를 방어하고 있었다. 며칠째 장마'비가 계속되였다. 교통호며 전호며 화'점들에 물이 가득가득 들어 찼다. 비록 비가 오기 시작한 뒤부터 놈들의 공격이 뜸해지긴 했으나 우리는 두 주일간의 격전에서 지칠대로 지친 몸을 쉴 새도 없이 밤을 새워가며 무너앉은 교통호를 파내야 했고 화'점 속의 물을 퍼내야 했다. 식량과 탄약도 운반해 와야 했으나 얼마 남지 않은 인원으로 모든 일을 단꺼번에 치룰 수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강물이 범람한 지금 남강리 인민들로 조직된 운반대가 강을 건느며 그것을 운반해 오리라고 믿기도 어려운 일이였다.

그것도 그럴 것이 누런 흙탕물이 사태를 일으킨 남강 우에는 놋가락 드리우듯 쏟아지는 작달비가 요란스레 절라당거리고 펑펑 깊어만 지는 물'살은 강쪽으로 굽을 숙인 우리 고지의 한쪽 변두리를 당장 밀어 버리기라도 할듯한 사나운 기세였다.

이러한 어느 날 아침이였다. 우리들이 밤 작업에서 젖은 옷들을 쥐여 짜고 있노라니 밖에서 누군가가 다급히 소리 지르는 것이였다.

《여, 빨리들 나오라구, 저기 뭐이 건너 오네, 남강을 건너와》

우리는 밖으로 우루루 몰려 나가 안개처럼 뽀얀 비'발속에 남강을 굽어 보았다. 무섭게 설레이는 남강의 한 복판에서 물멀기에 밀려 나무'잎처럼 배뚝거리며 떠 내려 오는 자그마한 떼'목이 보였다. 그것은 실로 아쓸아쓸한 고비를 넘고 있었다. 거센 물'살이 통나무에 부딪쳐 좌르르 흩어질 때마다 떼'목은 무섭게 요동치며 공중 들렸다가 떨어지는 것이였다. 우리는 모두 가쁜 숨을 몰아 쉬였고 손에 땀이 질편하게 고였다. 그리하여 떼'목이 엇비뚬하게 물'살을 질러 강의 한 복판을 벗어 나왔을 때에야 겨우 안도의 숨을 길게 내 쉬였다. 떼'목우의 사람들이 다름아닌 남강 마을의 부락 운반조들임을 확인하자 나는 지체 없이 두 명의 전사를 아래로 파견하였다.

이윽고 고지에는 쌀가마니를 진 전사들과 그 뒤를 따라 아래'도리를 무릎까지 걷어 올린 마을 사람 하나이 먼츰 올라 왔다.

《수고 했습니다. 동무》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며 흰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맨 그 청년에게 겨끔내기로 손을 내 밀었다. 그런데 이때 《괜찮어요》 하는 그의 목소리는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분명 그것은 녀자의 목소리가 아닌가!

우리는 비'물에 젖은 그의 얼굴을 재삼스러히 훑어 보며 어안이 벙벙했다. 그제야 그의 크고도 정채있는 두 눈에 담긴 그윽한 아름다움과 담차게 꼭 다물려진 입시울에 보숭털이 솜솜히 돋은 것을 알아 보았다. 우리들의 눈치를 알아챈 그 처녀는 까르르 웃음을 터치더니 말했다.

《왜들 그렇게 깐깐히 보시나요. 내 얼굴에 아마도 무에 무던나 봐! 아, 남복이야 모진 비'바람을 뚫고 강을 건너야기에 했죠 뭐(그러면서 어느새 자기 옆에 와서 시무룩한 태도로 퇴색한 지원군 모자에서 비'물을 쥐여 짜고 있는 한 소년을 소개하는 것이였다) 우리 민청 분조장입니다. 참 용감한 동무예요》

머루알 같은 두 눈이 깜박거리는 그소년의 나이는 극상 열 일곱 밖에 되여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중대부로 안내하였다. 처녀는 중대장 동무와 악수한 후 자기들이 온 사연을 이렇게 말했다.

《군관 동지! 저희들은 건넌 마을 민청원들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운반조 늙은이들이 못 건넌다고 말리는 것을 여기 형편이 어려운줄 알면서

야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 몰래 가만히 건너 왔습니다》

《고맙소!》 중대장도 그 이상 더 할말을 찾지 못했다.

아! 얼마나 훌륭한 동무들인가! 우리들은 감격으로 하여 가슴이 높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모두들 정다운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 보았다.

이윽고 처녀는 일어 서면서 말했다.

《이젠 돌아 가겠어요!》

《다시는 그런 모험을 마시요. 전호 수리나 끝나면 직접 우리 손으로 운반해 올 작정이요》

이렇게 중대장이 말한즉 처녀는 그저 생긋 웃기만 하였다. 그리고는 잠시 저어하는 기색이더니 이런 부탁을 하였다.

《저 떼'목을 좀 웃쪽으로 끌어 올려 주세요. 우리 힘만 가지구선 물'살이 너무 세서 자꾸 아래로 밀려 내려 가기 쉬우니까요》

그리하여 나는 중대장 동무의 지시를 받은 후 그들과 함께 강 기슭으로 향하였다. 포탄에 짓뭉개진 험한 비탈길을 벗어나자 그 처녀와 나란히 걸으면서 호기심에 차서 물어 보았다.

《그러다가 떼'목이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걸라구요》

《념려말라요! 사람이란 마음만 다잡아 먹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때 갑자기 쉬쉬 소리가 났다. 나는 그들의 팔소매를 잡고 열른 포탄 구덩이에 뛰여 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포탄이 쾅하고 터지더니 풍뎅이처럼 날아온 파편 하나가 우리의 코 앞에 떨어져서 쉑쉑 거린다. 우리는 다시 뛰쳐 일어나 흙투성이 몸이 된 채로 떼'목을 향해 달렸다.

《겁나지요?》 나는 떼'목을 잡으며 말했다.

《아—뇨. 이젠 포탄쯤 습관됐답니다. 우리 마을에도 매일 함포탄이 떨어지지요. 그래도 우리는 농사 일을 쉬지 않는 답니다》

기슭에서 떼'목을 밀어 내며 나는 말했다.

《조심 하십시요》

《념려 마세요. 저녁 때 또 오겠어요》

거센 물'살을 헤가르며 강심을 꿰지르고 들어가는 그 처녀의 용감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녕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1초가 바쁘기 짝없는 진지 수리만 아니라면 강 건너까지 바래워 줄 수도 있건만…)

그날 저녁 처녀는 우리들을 위하여 두랑이나 식량을 더 운반해 왔다.

다음날부터 비는 씻은 듯이 멎었다. 이렇게 되자 예견한 대로 적들은 아침부터 또 아군 고지에 달라붙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중대가 네차례에 걸친 적들의 공격을 격퇴한 때였다.

분대 원형 방어 진지의 중심에서 전사들을 지휘하던 나는 그만 얼굴과 옆구리에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러나 분대를 지휘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하여 전사들에겐 아무런 내색도 내지 않고 옆구리를 부둥켜 안고 다시 일어났다. 그리하여 전투가 끝나자 나는 기진 맥진 쓰러져 버렸다. 암만 일어 서려고 애써도 자꾸만 수은처럼 재여 나가는 정신을 어찌할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나는 몸이 요람우에서 처럼 흔들리는 것을



감촉하면서 정신을 차렸다. 나는 얼굴 전체에 붕대한 것을 모르고 눈을 뜨려고 부질없이 애썼다. 누군가 나를 편히 눕히려고 서성대면서 말한다.

《됐소. 금주 동무! 어서 떠납시다》

그것은 귀에 익은 대대 위생병의 목소리였다. (떼'목? 나를 강 건너로 실어가는 구나! 아아, 미국 놈을 한놈이라도 더 잡지 못하고 이렇게 후송된다는 것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그래서 나는 발을 버둥대면서

《여보 동무! 날 내려 놔주. 난 못 가겠소》 하고 제딴엔 목청껏 소리질렀다. 그러나

《분대장 동무! 움직이지 말라요. 잘못 하면 강물에 풍덩해요》

하는 처녀의 말소리를 듣자 나는 실망하고 말았다. 아마 나의 목소린 입안에서만 맴도는 모양이였다.

위생병은 나의 몸을 모포로 감싸주면서 처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떼'목이 강의 복판쯤 왔으리라고 생각될 즘에 갑자기 머리우로 쉬쉬거리는 박격포탄 소리가 들리더니 멀지 않은 곳에서 작렬한다. 한방 또 한방 포탄은 련이어 터진다. 폭풍에 날린 물갈기가 나의 몸에 덥씌우고 떼'목은 검불처럼 요동친다. 이때 나는 또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다음 정신이 들었을 때는 머리말에서 웬 할머니의 기침소리가 났다. 그래서 나는 물을 청했다. 달콤한 것이 입안으로 흘러든다. 아마도 꿀물인 모양이다.

《정신이 좀 드시우!》 하고 할머니는 기뻐 하신다. 나는 붕대를 헤쳐놓은 한쪽 눈으로 방안을 두리두리 살펴 본다. 아늑한 반 토굴집인데 손바닥만한 유리쪼각을 붙인 들창으로 불그레한 저녁 해'살이 스며 들고 있다.

나의 무엇을 찾는 듯한 눈초리를 알아 채린 듯 《우리 애를 찾수?》하면서 할머니는 그 처녀에 대한 말을 했다.

《이재 방금 군대 동무를 업고 왔을땐 당장 그 자리에 쓰러질것 같더니 숨도 돌리지 않고 그 위생병과 함께 담가를 구하려 나갔다우! 이미

강'가에 가져다 놓은 닭가는 먼젓 환자들을 날라 가노라고 다 없어졌대유. 군대 병원은 이곳에서 머지 않은 온정령 근처 어디엔가 있대유…》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눈물이 글썽 해졌다. 나는 그날 저녁 부대 군의소에서 금주와 헤여진후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 후 병원과 부대에서 여러번 편지하였으나 그 처녀의 소식은 종래 감감 무소식이였다. 나의 가슴은 몹시 안타까왔다.

그러나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건 전장에 있을 때건 나의 눈엔 그 처녀의 용감한 모습이 항상 삼삼히 떠올라 나를 고무하여 주는 것이였다. 그에 대한 생각은 마치 내 가슴에 괴여 오르는 맑은 샘물과도 같이 나의 힘을 북돋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소식을 모르면서도 마음속으로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 처녀는 반드시 용감하게 싸우리라!) 아마도 금주 동무는 그 때 벌써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있는 주소로 소개되여 가 그곳에서 알뜰한 가정마저 꾸린 모양이였다.

깊은 회상에서 깨여난 나는 혼자'말로 되까렸다.

《이렇게 용감한 후방 인민들이 있으므로 하여 우리는 지난 전쟁에서 이겼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불패하리라!》

그리고 귀중한 나의 은인 금주 동무의 사진을 칼로 정성껏 오려 새로 만든 수첩의 첫장에 붙여 놓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 쇄빙선

쏘련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 발동기로 장비된 쇄빙선 《레닌》이 금년 중으로 완성된다. 이 쇄빙선은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지고 있는 미국의 최신식 쇄빙선 《글레트체르》 보다 2배 이상이나 더 큰 위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글레트체르》는 2만 2천 마력인데 쏘련의 원자 쇄빙선 《레닌》은 4만 4천 마력이다. 그의 길이는 134메터, 폭은 27,6메터, 배수량은 1만 6천톤, 시속은 18해리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의 열핵 보유량은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12만 키로메터의 항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로 지구의 주위를 세 번 도는 것과 같은 것으로 된다.

원자 시계

쏘련 과학자들은 새로운 전자기 진동 발진 방법을 발견하여 이것을 원자 시계라고 부르는 표준 시계 제작에 리용하였다.

진행된 시험 및 리론상 계산의 결과에 의하면 이 새로운 원기의 정확도는 0,000000001 보다 적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이 시계는 백년 동안 계속 움직인다 하여도 그 오차는 1초 미만에 불과하다.

현재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물리학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원자 시계》의 조립이 완성되고 있다.

이 《원자 시계》는 전파 탐지 및 항행술에 광범히 리용될 것이며 일련의 근본적 과학상 문제들 즉 지구 회전 속도의 불균등성에 대한 측정 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바 다 여!

리 맥

쏴ㅡ처절 썩
바위에 부딪쳐 구슬로 부서지며
천 만년 변함 없이 흐르고 흐르는
너 검푸른 바다여
출렁거리는 물'결이여

너와 마주 서면
씻은듯 마음 깨끗해지누나
넓고 깊고, 끝없이 푸르름
너와 마주 서면
솟아나누나 가슴에
노래와 꿈과 슬기로움이

풍겨 오는 싱싱한 해초 냄새
고기 비늘처럼 번쩍이는 아름다운 바다여
내 더는 바램 없노라
바다에 나서
바다에서 장가 들고
바다에서 일하는 것,

집을 나서면
앞에는 휑뎅한 바다
넓으나 넓은 품 안기노라
배를 타고 바다'길에 서면
칼날 같이 일어 서는 파도
내 청춘의 노래를 타노라

그물을 당기면
펄펄 뛰는 고기떼
어찌 고기떼만이랴
천근 만근 무거운 조국의 보화 아니랴

오, 신비로운 대 자연이여
청춘의 바다여
너의 부원 한량 없으매
나의 영예 또한 한량 없고
너의 노래 끝 없으매
나의 노래 또한 끝 없노라

또다시 떠나자
나의 저예망선이여, 기'발을 날리자
격랑을 차고 짠 바람 헤치며
달려 가노라, 바다가 불러
조국이 불러 내 달려 가노라.





양수장에서 일어난 사건

황 호

비상 소집을 알리는 종소리는 여전히 울렸다.

이집 저집에서 문을 열어제끼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함치는 소리가 부산스레 들렸다. 동네는 졸지에 발칵 뒤집혔다. 관리 위원회로 내 닫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언뜻언뜻 바라 보인다.

밖을 뛰여 나온 영철이는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을 이내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이슬에 젖은 풀발을 가로 질러 관리 위원회 쪽으로 내 닫았다. 이때 어둠 속을 달려 오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여?》 영철이는 무춤하고 서며 소리쳤다.

《나요, 나, 규만이요…난 또 누구라구, 영철 동무요?》

상대쪽은 헐레벌떡이며 영철이 한테로 달려 오더니 《큰 일 났소, 양수장에서 그만…》 하고 숨을 태운다.

《양수장에서?!》

영철이는 가슴이 철렁 했다. 양수장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있었다.

《양수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소?》

영철이는 그가 잡아 당기는대로 따라 뛰며 다우쳐 물었다.

《박 로인말이요… 오라 동무의 아버지겠군, 어떤놈 한테 피해를 받았네》

규만이는 자기가 아래'마을에 갔다 돌아 오는 길이였는데 양수장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모타소리가 끊어지기에 이상하여 유심히 살펴 보니까 한참후에 양수장 기계실에서 검은 그림자가 백양나무 뒤로 내 빼더라는 것이였다.

《그러구 양수기까지 마사 놓았네… 이만 저만한 반동놈의 짓이 아닌것 같네》

영철이는 규만이의 다음말을 등뒤에 들으며 논'두렁에 엎으러지면서 양수장을 향해 정신없이 내 달았다. 희끄므레한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백양나무가 하늘을 빗질 하듯이 소리 없이 설레고 있었다. 영철이가 양수장에 다달았을 때는 이미 몇몇 조합원들이 모여와 떠들석 하며 치만 떨고 있을 뿐 어찔줄 몰라 서성거리고 있었다. 홰'불에 비친 기계실안은 격투를 한 흔적이 확연하였고 영철이의 아버지는 정신 없이 쓰러져 있었다. 영철이는 와락 달려 들어 아버지를 껴안아 일으켰다. 아버지의 옷은 산산히 찢기였고 어깨와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있었다.

영철이는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를 대구 흔들었다. 심장은 불규칙적으로 가냘프게 뛰였다. 박 로인은 문득 이를 부등 부등 갈더니 헛소리를 쳤다. 《혹, 혹, 잔등에 혹…》

× ×

다음날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는 관리 위원장과 규만이가 마주 앉아 있었다.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상냥하게 생긴 관리 위원장이였으나 그의 얼굴은 하루'밤새 불시에 몇살 더 늙어진것 같았다. 사실 이 복골 협동 조합에서는 당의 농촌 정책을 높이 받들고 묵은 땅들을 일구어 신답으로 풀어 놓을 거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것을 여러 협동 조합에 발기해 나섰던 것이였다. 물론 조합에서 늙은 축들은 《관리 위원장이 공명심에 들떠 되지도 않을 일을 벌려 놓았다》고 은근히 비난도 하였다. 그러나 관리 위원장은 복골 협동 조합에서 이 일이 성공하면 그것은 료원의 불'길처럼 전국적인 거대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알곡 증산에 크게 기여 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비난을 과감하게 극복하며 일을 촉진시켜 오던 참이였다. 이러한 긴박된 시기에 양수장이 파괴되였다는 것은 여간한 큰 타격이 아니였다.

관리 위원장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생각다 못해 동무의 힘을 빌려 볼가 해서 이처럼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관리 위원장은 미안한 낯으로 규만이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야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옛 고향이라구 찾아 왔다가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니…》

《모두 우리가 경각성이 무딘 탓이였지요》

관리 위원장은 가슴 아픈 표정이였다.

《글쎄 제가 오분만 더 빨리 양수장쪽으로 왔어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건데… 참 원두 더럽게 될려니까…》 규만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못 분개한 표정으로 말했다.

규만이는 원래 이 부락 출신이였다. 그의 아버지인 박 치서은 밸이 여간 사납지 않아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라면 참지 못하는 성미였다. 그래 그는 해방되기 오래전에 이 고장 마름으로 여간 악질이 아니였던 권가 놈의 면상을 패놓고 어딘가 종적 없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때 규만이는 겨우 너덧살 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래 지금도 이 고장 로인들은 말끝마다 규만이 아버지를 칭찬하였다.

《그 사람 과연 시원시원 하였지, 지금쯤 같이 협동 조합에서 일하면 오죽 좋겠나…》

그러던 중 실로 뜻밖에도 모 기계 공장의 기수가 된 규만이가 휴가를 맡고 옛 고향을 찾아온 것이였다. 그래 부락에서는 그를 귀중히 맞이 하였던 것이다.

관리 위원장은 무엇을 곰곰히 생각하다 미안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사실 오랜 세월만에 옛 고향이라고 찾아온 규만 동무에겐 이게 말이 안됩니다마는 어떻거겠소… 동무두 아다 싶이 우리 협동 조합에선 양수기를 태산 같이 믿고 큰 일을 벌려 놓지 않았댔소…참 일이 더럽게 되였소—그는 담배를 한모금 힘껏 들이키고 나서—마침 동무가 모타를 전문으로 한다니…그래 좀 수구해 주었으면 해서…》

관리 위원장은 다음말을 맺다말고 이마에 난 땀을 문댄다.

《그런걸 가지구 원 그렇게 힘들게 말씀하시우… 해봅시다. 저두 모타에는 좀 밝은 축입니다》

하고 규만이는 선뜻 대답하고 빙그레 웃었다.

× ×

규만이가 양수장에 나가 일하기 시작한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였다.

젊은 조합원들은 신답에 물을 대느라고 파래질을 하고 있었다. 이때 누가 영철이를 뒤에서 불렀다.

《영철 동무 한대 피우구 하지…》

돌아다 보니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하게 묻은 규만이가 서 있었다.

《규만 동무, 참 수구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를 찾아가 그의 로고에 감사를 드려야할 자기가 오히려 여직 양수장에 한번도 얼굴을 내 밀지 않은 것이 미안스러워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수구할것 있소…모두 다시 찾은 고향을 위해 하는 일이지…그런데 아버지의 경과는 어떠시오?》

천천히 다가와 풀 밭에 앉으며 물었다. 《경과가 괜찮다고들 해요…예서 그놈의 원쑤를 잡아야겠는데…》

영철이는 그의 옆으로 다가 가 앉으며 정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옳은 말이요. 원쑤를 붙들어야 하오. 사실 나두 이 일이 고되긴 하여두 동무의 아버지의 원쑤를 잡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나군 하오》

영철이는 그만 목구멍이 울컥 메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하고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 ×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끝낸 군 내무서에서는 긴장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로련한 안전 일'군인 군 내무서 부서장이 직접 이 사건을 담당하였다.

밤새도록 양수장 근처를 한 청년이 그림자 같이 돌고 있다가 날이 샐녘이 되면 어딘가 사라지군 하는 것을 누구하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규만이가 양수장에 들어 백여 일하기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날 저녁이였다. 양수장쪽에서 갑자기 모타 소리가 울렸다.

조합원들은 환성을 올리며 양수장쪽으로 몰려 갔다.

그러나 양수기는 얼마 돌지 못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픽픽 거리더니 멎어 버렸다. 다시 발동을 넣으려고 규만이가 무진 애를 썼으나 종시 모타는 돌아 가지 않았다.

이마에 땀이 송골 송골 내 돋은 규만이가 일어서며 미안한 듯이 《념려 마십시요. 래일 저녁까지면 완전히 고쳐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조합원들은 어쨌던 기계가 잠시나마 돌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이날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영철이였다.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고난 영철이는 병원에서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부락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의 눈'길은 자꾸만 양수장쪽으로 쏠리였다. 네모반듯한 창문으로 전기 불'빛이 환하게 비쳐 나오고 있다. 영철이는 규만이의 뜨거운 심정이 댓바람에 가슴에 뭉클하게 안겨 오는 것을 느꼈다.

(어서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하던 감사의 뜻을 전하자)

영철이는 더욱 걸음을 다우쳤다.

양수장에 거의 다가온 그는 뛰다 싶이 걸음을 다우쳐 마치 오랜 세월 헤여졌다가 만나는 사람처럼 《규만 동무!》하고 소리치며 문을 벌꺽 열었다.

순간 영철이는 얼어 붙은듯 그 자리에 서 버렸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증오로 하여 휘둥굴 해졌다. 샤쯔를 홀렁 벗어 버리고 쭈그리고 앉아 무엇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규만이의 왼쪽 잔등에서 주먹만한 혹을 보았기 때문이다.

《혹!…》영철이는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으며 덤벼들듯 그를 쏘아 보았다. 그 때에 뒤를 힐끗 돌아다 보는 규만이의 얼굴은 볼꼴 사납게 이그러지고 그의 눈은 독살스러워졌다.

《자식 보았구나!?》규만이는 벌떡 일어 서며 스파나를 움켜 쥐였다.

영철의 가슴에는 증오의 불'길이 일시 확 솟구쳤다.

《이 원쑤놈아!》불덩이가 된 영철이는 앞뒤를 생각할 새가 없이 총알같이 그놈의 가슴팍을 향해 뛰여 들며 주먹을 박았다.

《윽!》짐승같이 울부짖으며 그놈은 비칭거렸다. 재차 답새려고 뛰여 들때 그놈의 손이 번쩍 반원을 그렸다. 순간 영철이는 눈 앞에서 수십개의 불꽃이 튀고 아찔 해지는 것을 느꼈다. 스파나를 던진 것이다. 얼굴을 감싸며 가까스로 눈을 치떴을 때 영철이는 단도를 틀어 쥐고 점점 조여드는 그놈의 피묻은 상판을 보았다. 《악!》반사적으로 웨치며 뒤'걸음 칠때 그를 날쌔게 옆으로 밀어 제끼며 뛰여드는 사람이 있었다.

《손 들엇!》

그의 손에는 권총이 쥐여 있었다. 영철이는 그가 군 내무서 부서장임을 알아 차리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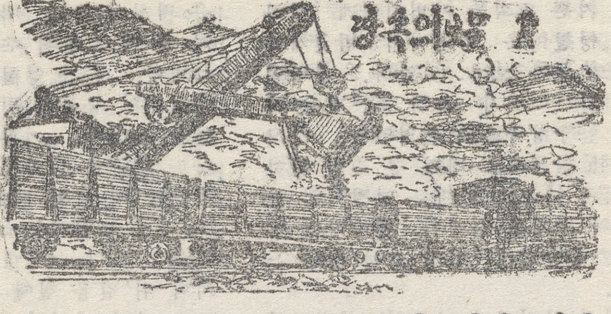
이윽고 영철이는 눈 앞에서 물 그림자 같이 어른거리는 관리 위원장의 얼굴을 알아 보았다. 《정신이 드오. 영철 동무?》관리 위원장은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용감했네, 참말 용감했네》

영철이는 구석에 결박되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원쑤놈을 보자 비로소 아버지의 원쑤를 갚은 기쁨이 가슴에 우죄여 드는 것을 느껴 빙그레 웃었다.

그후 규만이란 놈은 자기가 미군 첩보대 D, L, D (디, 엘, 디)에서 파견된 간첩으로서 이 고장에 살았다는 박 치서의 아들로 가장하고 들어와 양수장을 파괴하고 협동 조합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했다는 것과 양수기를 수리하는척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지연시키며 자기들의 상전과의 무전 련락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토하였다.

자랑하세! 조국산천

땅속의 보물 2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

이 애국가의 일절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크낙한 자랑과 긍지를 느끼게 된다. 우리 나라는 그렇게도 은금의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이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때 미군 고용병들은 조선의 은금 보화를 탐내여 조선 전선에 지원해 왔다가 인민들의 가정에서 놋주바리와 심지어 요강까지 말짱 금인줄 알고 략탈하였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조선은 그렇게도 무진장한 은금 보화의 나라로 알려졌던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는 지하 자원에서, 그의 품질의 우량함에 있어서나 그의 매장량과 산출량에 있어서나 세계의 그 어느 나라 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석탄, 철, 연, 마그네사이트, 흑연, 금들을 비롯하여 탕그스텐, 모리브텐, 아연, 망강, 니켈, 수은, 은, 동, 활석, 규사, 운모, 중석, 화강암, 대리석에 이르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유용 광물들이 있는가!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하여도 2백 수십 여 종에 달하며 그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만 하여도 150 여 종이나 된다.

그러기에 우리 나라를 외국 사람들이 세계의 광물 표본실이라 부르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방대한 우리 나라의 지하 자원들 중에서 우선 연료용 광물과 흑색 금속 광물에 대해서만 알아 보기로 하자!

1. 연료용 광물 자원

연료용 광물은 각종 유용 광물들 중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광물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석탄은 공업 발전과 인민 생활 전반에 걸쳐 가장 필요하다. 그러기에 석탄을 《공업의 식량》이라고도 하고 《검은 금 덩어리》라고도 한다.

이 석탄은 고대의 생물(특히는 식물)이 땅 속에 묻혀 공기와 접촉되지 못하여 오랜 시일을 걸쳐 탄화된 것인데 그 탄화의 정도에 따라 니탄, 갈탄, 력청탄, 무연탄 등으로 구분된다. 또 항용 우리들은 이것을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석탄의 매장량이 대단히 풍부하며 그의 총 매장량은 전국 각지에 걸쳐 실로 20억 톤이라는 방대한 수'자에 달한다. 만일 이것을 일년에 1,000만 톤씩 채굴한다 하여도 2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계속 캐내야 할 것이다. 특히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그 매장량은 대단히 풍부하다. 전국 매장량의 70% 이상이 북반부 지역에 매장되여 있는바 그의 산출량에 있어서도 전국 산출량의 9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 중에서 가장 용도가 넓은 무연탄만 하여도 97.7% 이상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산출된다.

이제 석탄별로 그의 특징과 분포 정형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ㄱ. 무연탄: 그의 특징은 석탄으로서 최고도로 탄화된 것이므로 고정 탄소는 90% 전후에 달하고 수분(2~3%)과 휘발분(1~2%)이 적어서 발열량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연소시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또 무연탄은 보다 많이 탄화되면 흑연으로 되는데 고정 탄소의 비률이 큰 무연탄은 흑연 대용으로도 리용된다.

그러기에 무연탄은 모든 석탄 중에서 가장 용도가 넓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석탄 매장량의 78.5%(약 15억 7,000만톤)가 이 무연탄이다. 특히 평안남도는 우리 나라 무연탄의 주요 산지이다.

평양시를 비롯한 강동군과 승호군, 강서군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동서 80키로에 달하는 평안남도의 남부 탄전과 개천군, 덕천군, 북창군, 은산군 일대로부터 청천강을 건너 평안북도의 녕변, 구장 일대에까지 걸쳐 있는 평안남도의 북부 탄전에는 우리 나라 무연탄 총 매장량의 60% 이상이 매장되여 있다.

평안남도 북부 탄전만 하여도 약 5억톤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음 가는 탄전으로는 강원도 북부의 문천 탄전과 녕월, 정선, 삼척 등인바 그외에도 산출되는 곳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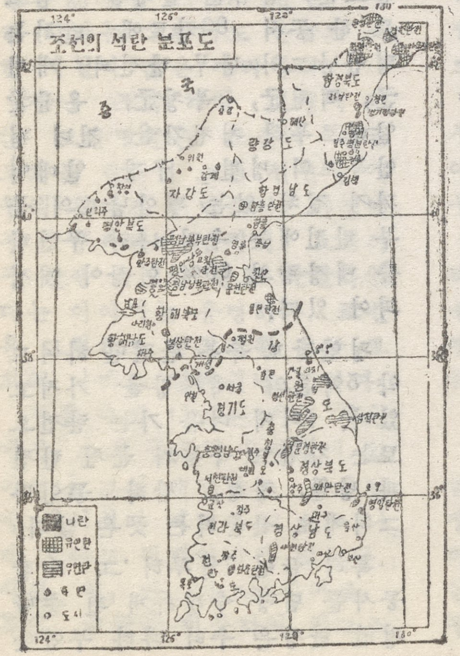
특히 금년 7월부터 그 개발 공사를 담당 수행하게 된 송남 청년 탄광은 우리 나라 무연탄

매장량의 60%를 차지하는 평남 북부 탄전에 속하는 미개발 처녀지인바 금후의 발전 전망은 자못 크다.

ㄴ. 갈탄: 우리 나라는 갈탄의 매장량도 대단히 많은바 매장량은 4억톤을 넘는다.

갈탄은 연료로서 귀중할 뿐 아니라 아직 원유가 발견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액체 연료 (메칠 알콜) 생산을 위한 연료로도 리용되고 있다.

갈탄은 전체 매장량의 약 90%가 원라선을 따라 함경북도의 남부로부터 두만강 하류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 매장되여 있다. 갈탄은 길주—명천 탄전, 생기령 탄전, 라남 탄전, 회령—유선 탄전, 종성 탄전, 온성, 경원, 경흥 탄전 등에 집중되여 있다.


조선의 석탄 분포도

우리 나라의 갈탄은 비교적 유분(油分)이 많고 특히 값이 있는 파라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연료로 사용되는 외에 화학 공업의 원료로도 많이 리용되고 있다.

ㄷ. 니탄: 우리 나라에서의 니탄은 그 탄화 정도가 매우 약하여 아직 공업용 원료로는 리용 못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용 연료로서와 특히는 우리 나라의 농업 발전에서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는 비료로서 그 가치는 대단히 높다. 때문에 지금 니탄은 농민들에게 대단히 귀중한 자원으로서 널리 애용되고 있다.

그 중요한 산지로는 평안북도의 남부 해안 지대와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남부 해안, 함경남도의 해안 등지이다.

우리 나라에서 산출되는 연료 광물로서 석탄외에 갈탄의 협탄층으로 유모 혈암이 있는데 그 량이 적어 아직 개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석탄을 채굴하는 것보다 로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그의 개발 전망은 자못 기대된다.

이상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석탄이 풍부한 나라이다. 때문에 조선 로동당 3차 대회 보고에서 김 일성 원수는 《석탄 공업의 주되는 과업은 석탄 우에 앉아서 막대한 량의 석탄을 매년 수입하는 참을 수 없는 현상을 퇴치하여 날로 증대되여 가는 공업, 운수 및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라고 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이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의 증산과 개발 리용에 적극 동원되여야 할 것이다.

2. 흑색 금속 광물 자원

흑색 금속 광물이라 함은 선철, 단철, 강철을 말하는바 이와 함께 특수강 즉 강철에 첨가하는 합금용 광물들인 중석, 수연, 니켈, 크롬, 망강, 코발트 등등도 그에 포괄된다.

흑색 금속—즉 선철(주철)과 강철은 모든 금속들 중에서 가장 널리 또 가장 대량적으로 리용되는 귀중한 자원인바 공업과 농업에 필요한 모든 기계들과 기구를 또한 현대적인 모든 운수 기자재들과 건축용 시설품 및 자재들과 심지어 가정 용구들에 이르기까지 흑색 금속이 리용되지 않는 부문은 거의나 없다.

즉 흑색 금속은 모든 공업의 기초로 되며 그의 기본적 원료인 철은 《만능의 금속》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수 많은 곳에 품위가 높은 자철광, 갈철광 및 적철광이 풍부히 매장되여있다.

우리 나라의 가장 풍부한 철광 매장 지대로서는 함경북도 지방과 황해 남북도, 강원도 등지에 분포되여 있으며 주로 북반부 지역에 집중되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전 조선의 철광 산출량의 99.9%는 북반부 지역에서 생산된다.

우리 나라 동북부에 위치한 함경북도의 무산 일대의 자철광은 그 매장량이 어느 곳보다도 가장 많은 곳인바 이 한곳에만 하여도 실로 13억톤이라는 놀랄만한 철이 매장되여 있다. 이것은 매년 500만톤씩 채굴한다 하여도 그것을 60 여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채굴할 수 있는 거대한 량이다.

그리하여 이 철광은 동양에서도 가장 큰 철광 중의 하나이며 일본의 전체 철 매장량의 20배를 훨씬 릉가한다.

무산 철광 이외에 자철광의 주요 산지로서는 함경남도의 단천, 강원도의 양양, 삼척 등지이다.

갈철광의 매장 지대로서는

멸악 산맥이 달리고 있는 황해남도의 은률, 재령 지방과 평안남도의 개천 지방 등지에 품위 60% 내외되는 우수한 광맥이 풍부하게 매장되여 있다. 이 지대의 철광은 우리 나라 서부 흑색 금속 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원료로 제공되고 있다.

적철광의 주요 산지는 그 역시 황해남도의 은률 지방을 비롯하여 안악 지방, 선천 지방과 평안남도의 강서 지방, 중화 지방, 합경 남도의 리원 지방 등이다.

이 외에도 우리 나라에는 수많은 곳에 품위가 높고 매장량이 풍부한 자철광, 갈철광, 적철광 산지들이 열만는지 있다.

그런데 흑색 금속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철광 이외에 합금 재료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월프람, 모리부텐, 니켈, 크롬, 망강, 코발트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들 광물의 적은 량을 한 종류 또는 두 종류를 강철에 첨가하면 보다 굳고 질기고 압력 있는 강철 즉 높은 열, 높은 압력, 큰 충동, 심한 마찰 등에 견디는 특수 성능을 가지는 강철을 얻게 된다. 때문에 발전된 공업은 점차적으로 보다 많은 특수강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합금 재료강의 수요도 현저하게 장성하고 있다.

아름다운 일

《…올봄에도 조합 민청원들은 또 우리 집 이영을 새로 이여 주었단다. 모두들 어떻게나 극성스레 우리 일을 돌봐 주는지 지금 두 늙은 것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구나! 그러니 너는 아예 집의 걱정말고 맡은바 일이나 잘 하여라!》

이것은 우리 마을에 사는 오 태권 할아버지가 초소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구절이다. 지금 로인의 아들은 군대에 나가 있고 집에는 오직 안팎 두 늙은이만 남아 계시다. 두 분은 모두 환갑이 훨씬 넘은 고령이시다.

그래서 조합내 민청원들은 모두 이 집 가사 범절을 마치 제집일처럼 돌봐 주고 있다. 김 필두, 김 봉녀 민청원들은 짬만 있으면 이 집 뜰악도 쓸어 드리고 심지어 물까지 길어다 주고 있다. 저녁이면 두 늙은이들이 고적해 할가봐 김 기원 동무는 신문이나 책을 들고가 읽

그러나 이들 합금 재료광은 지구상에 그의 분포가 많지 않으며 높은 품위의 광석이라 할지라도 함유량이 10단위에 오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른 유용 광물과 함께 각종 합금 재료광이 매우 풍부하여 매장량과 채굴량에 있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 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즉 월프람광 (흑중석과 백중석을 말함)의 매장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중국, 비르마와 함께 세계적으로 풍부한 나라이며 특히 그중 73.5% 이상이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서 채굴되고 있다.

월프람을 강철에 첨가하여 만든 월프람강은 대단히 질기고 높은 열에도 녹지 않으므로 고속도 공구, 장갑판, 태루 제조 등에 많이 리용되며 이 외에도 월프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구의 휘라멘트, 스파크, 코일, X선용 진공관 등에 리용되고 그의 화합물은 염색시의 매염제로, 안료로, 수채화 물감 등으로까지 사용되여 인민 경제 분야에서 그의 용도는 실로 다양하다.

모리브덴광(수연광)은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게 산출되는 광물인데 우리 나라는 이 모리브덴의 매장량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제 6위를 차지하며 역시 전

어 드리기도 하고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하여 드리기도 한다. 우리들은 올봄에도 조합내 민청 40여 명이 단합하여 아침마다 다른 조합원들 보다 30분씩 일찍 나와서 이집 지붕을 제일 먼츰 씌워드렸다.

그리하여 로인이 초소의 아들께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후 마을 민청원들에게는 오 로인의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다.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동무들이 있는한 집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게 되였습니다. 참말 감사합니다. 오직 나는 그와 같이 두텁고 따뜻한 원호와 배려가 있으므로 하여 안심하고 자기 임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는 동무들의 찬연한 로력 성과를 더욱 믿음직 하게 보위하겠습니다!》

이 외도 우리들은 조합내에 있는 여섯집의 후방 가족들에 대해서 적극 돌봐드리고있다.

평남 강남군 금대리
대이동 민청 위원장
김 성수

조선 각지에 분포되여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의 장수군과 강원도는 매장량이 많고 질이 좋아 저명한 모리브덴 산지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모리브덴광도 월프람광과 함께 합금 재료광으로서의 용도가 매우 크다. 제일 큰 용도는 특수강의 원료인데 강철에 모리브덴 또는 그와 함께 크롬, 니켈, 월프람 등을 첨가하여 만든 특수강은 공구강, 스테인레스강, 브로, 로라, 베아링, 레루 기타 등에 널리 리용된다.

니켈은 3% 내외를 강철에 첨가하여 니켈강을 만드는데 이는 굳고 탄성이 강하므로 비행기의 중요 부분 및 군함의 장갑판, 자동차 등에 리용되는 한편 잘 산화하지 않는 성능을 리용하여 동으로 만든 기계 공구 또는 철 그릇 등을 도금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크롬과 합금하였을 때에는 전열기에 리용되는 전기 저항이 큰 니크롬선의 원료로 리용케 된다. 우리 나라에서 니켈광으로 그 주요한 산지로서는 함경북도, 자강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충청남도 등지이다.

코발트광은 화강암과 밀접히 관련되는데 화강암류에 배태되는 광상(鑛床)은 규모에 있어서는 제일 크다. 코발트광의 중요한 광석으로는 함코발트 류비철광인바 주요 매장 산지들로는 강원도를 비롯하여 함경남도, 함경북도, 경상남도의 동래군, 밀양군, 함안군, 경상북도의 달성군 등지이다.

코발트도 텅그스텐이나 모리브덴, 니켈 등과 같이 그의 리용도는 매우 크다. 우선 굳고 질긴 성질을 리용하여 선반 바이트, 다이스, 착암기 정등 고속도 절삭 공구를 만들며 화학공업의 촉매제로도 중요하게 리용되며 전기 도금 등에도 리용된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 발전에서의 주도적 부문인 중공업의 귀중한 원료로서의 흑색 금속 광물 자원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 있다.

김 정 희

민청원의 권리는 어떤 것입니까

매개 민청원들에 민청원의 권리를 옳게 행사하는 것은 곧 민청내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며 민청 조직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 때문에 매개 민청원들은 자기의 의무 실행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옳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민청 단체들은 매개 민청원들로 하여금 자기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ㄱ. «민청원은 민청 회의와 출판물을 통하여 민청 사업의 모든 문제 토의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민청원들에게는 민청의 일정한 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민청 회의에서와 민청 출판물을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청원들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주는 것은 민청원들로 하여금 민청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하며 민청 사업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민청 회의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민청 사업에 도움이 될 창발적 의견을 내놓으며 민청 사업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오유를 시정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민청 사업을 항상 깊이 연구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청 사업의 실무적 문제 토의에 참가하여 좋은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고 다른 결정이 채택되였을 경우 그것은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의견이 있다면 해당 민청 지도 기관이나 민청 상급 기관에 제기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청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회의에서 취급될 문제의 내용을 민청원들에게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충분한 준비 밑에 토론에 참가하도록 하며 토론이나 의견을 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ㄴ. 《민청원은 민청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다》.

민청의 각급 지도 기관은 하부로부터 상부에 이르기까지 민청 총회, 민청 대표 대회, 민청 대회에서 선거됩니다. 민청원은 민청 지도 기관들을 선거하거나 또는 자기의 력량과 대중의 신임에 따라 민청 지도 기관에 피선될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또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군들을 지도 기관에서 소환할 권리도 가집니다.

따라서 민청 단체들은 규약에 규정된대로 총결—선거를 제때에 진행하여 민청원들로 하여금 이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지도 기관들의 사업을 선거 받은 민청 단체 앞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ㄷ. 《민청원은 민청 회의에서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떠한 민청원, 민청 일'군, 민청 지도 기관을 불문하고 비판할 수 있다》.

우리 민청은 매개 민청원들에게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이야 말로 민청 사업을 발전시키는 강유력한 무기로 되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민청 내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고 민청원들의 사상 의지 및 행동상 통일을 보장하며, 민청 사업에서 발생하는 결함과 오유를 미연에 혹은 제때에 시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매개 민청원들은 어떤 민청원이나 민청 일'군들의 사상 행동에서 표현되는 그릇된 립장과 사업 작풍 등에 대하여 서슴치 말고 폭로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의 자유란 구실 밑에 정당한 리유와 근거 없이 비방하여서는 안됩니다. 비판은 높은 정직성과 동지애가 충만하고 결점과 과오를 고쳐주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 되여야 합니다.

ㄹ. 《민청원은 자기 활동과 사업에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는 회의에 직접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청원들은 이러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자기의 활동과 사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립장과 의견을 내

놓고 정당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취급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확실치 못한 혹은 일면적인 반영에 의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ㅁ. 《민청원은 민청 중앙 위원회에 이르기 까지의 민청 각급 기관에 모든 문제에 대한 신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민청원들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준 것은 민청내에서 정당한 의견이 말살되지 않으며 민청 규률이 위반되지 않고 민청 기관과 민청원들과의 련계를 튼튼히 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민청원들의 신소와 의견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민청 사업에 대한 창발적 의견, 민청 지도 기관과 민청 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비판과 신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청원이 비판을 하였을 때 억압을 당하였거나 불공평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보고와 신소일 수도 있으며 또는 민청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과 애로를 해결 받기 위한 제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소와 의견은 직접 해당 민청 지도 기관을 찾아 가서 구두로 할 수도 있으며 서면으로, 또는 민청 출판물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민청원들의 신소와 청원을 받은 민청 단체는 그것을 깔아두지 말고 제때에 신중히 처리하고 그의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청원들이 제출한 신소 청원 내용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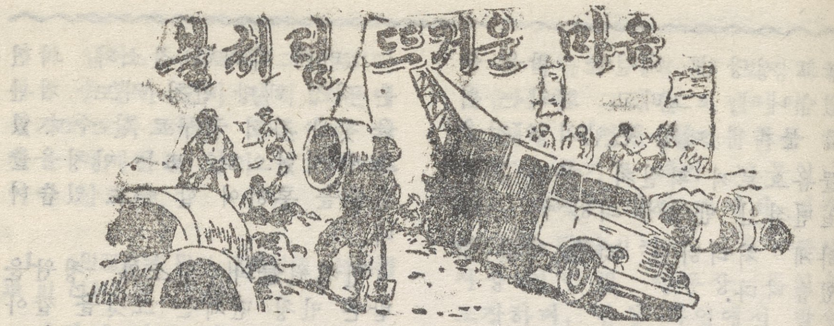
× ×

민청원의 권리는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어떤 민청원이 민청 지도 기관에 선거되기 위해서는 우선 민청원의 의무 실행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청원들은 민청 사업에 열성적이고 민청원들 속에서 신망 있는 민청원을 지도 기관에 선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개 민청원들은 민청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실천함과 함께 자기들의 권리를 옳게 행사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삼아야 합니다.

불처럼 뜨거운 마음



우리는 동평양 오수 간선 공사장, 종합 병원이 지척에 바라 뵈는 흙무지에 평평히 앉아 있었다. 김 홍장 동무(그는 원산 농대 동원 대대 농업 건설 학부 정치부 중대장이다)는 잠시 말을 끊고 발끝의 돌을 주어서 대중 없이 획 하고 팔매친다. 우리의 눈 아랜 5—6메터 깊이로 판 수로같은 도랑이 고무 공장께로 길게 혈맥처럼 뻗어 있다. 원산 농대 학생들에 의하여 지하에 느려진 이 혈맥을 통하여 앞으로 동평양 일대의 오수는 흐를 것이며 이 지대는 더욱 말쑥하고도 아름다운 거리로 될 것이다.

공사장은 마치 한고비의 격렬한 전투가 끝난 싸움터처럼 조용하다. 1계단 공사를 기일보다 앞당겨 근 열흘이나 빨리 끝낸 그들은 대부분 추가로 맡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딴대로 가고 여기엔 오수도관을 느리기 위한 작업에 종사하는 동무들만 남아서 도랑밑에 들어가 일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학생 걷기 대회가 있기 전 일입니다. 우리 학부 민청 위원회는 학생들 속에서의 사상 동원을 위한 위원회를 열었습니다.》하면서 홍장 동무는 말 머리를 돌려 원산에서 떠나기 전부터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날밤 회의는 늦어졌습니다. 나는 교문을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5월이니 아직 여름이라 하기는 이르지만 날은 약간 무덥고 송도원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역시 무더운편이였습니다. 하늘엔 별이 눈들을 반작이고 굴쪽같은 여드렛달은 밝은데 참으로 청춘의 가슴에 아름다운 꿈을 자연히 실어다 주는 그런 포근하고도 고요한 봄밤이였습니다.

개울목에 이른 나는 졸졸 흘러 내리는 개울물 소리에 섞이여 들려오는 구슬이 굴러 가는 듯한 아름다운 처녀의 목소리에 그만 놀라 걸음을 문뜩 멈추었습니다.

바로 여울목 저만치에 좀 어슴프레 검은 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토요일 밤 같으면 우리 대학 기숙사생들이 흔히 산보삼아 놀러 나오는 그런 개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오늘밤에 저 그림자는 웬 일일가 하고 의아쩍게 생각하던 나는

〈왜 아픈데 병원에 안가요?〉하는 소리에 (오—라 바로 그 꾀꼬리라고 불리우는 1학년 명가수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장소도 그렇구 해서 슬쩍 걸음을 돌려 저리 돌아 큰 길로 나설가 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여울목에서 두 남녀 학생의 다정하고도 서로 뜻이 어울리지 않는 듯한 말소리가 계속 울리여 왔습니다.

〈큰 병두 아닌걸 가지구 머—〉

〈그래두 벌써 그저께부터 신열이 심하지 않아요〉

〈심하기야… 시험 준비 좀 하느라 좀 무리를 했더니 몸이 쇠약해진 것 같애〉

〈그러니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갔다간 이번 평양에두 못 가게 될전데〉

〈호호호 참 소심해요, 아직 갈 때까진 며칠이 더 남아 있는데 그새 약이라도 먹고 무병한 몸으로 로력 동원에 참가하면 더 좋지 않아요〉

〈아니야, 그럴 필요없어. 평양에 가서 오랜만에 걸싸게 일하느라면 사소한 병도 저절로 낳을거야…〉 하면서 처녀와 같은반 학생인 리 효식 동무는 낮윽하나 힘 있는 어조로 대'구하는 것이였습니다. 〈생각해 보우.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소. 전선에서 후방에서 전쟁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소. 그리고 학교에 남아 있던 동무들은 전시 학습을 위해 얼마나 완강하게 노력하였소. 원쑤들의 폭격에 우리 학교가 불탔을 때 나도 밤잠을 자지 않고 지하 교실을 짓는 일에 참가했었소. 우리 대학생들은시련 속에서, 로동 속에서 단련된 그런 몸이요이렇게 자라난 대학생인 내가 이번 영예로운 임무 수행에서 빠진단건 감히 입밖에 내기도 부끄럽소. 아니요, 병원엔 안갈테요…〉

나는 코허리가 시큼해 옴을 느꼈습니다. 리 효식 동무야말로 얼마나 깨끗한 량심을 가진 청년입니까! 그의 말은 진실하지요. 사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로동 속에서 조국의 번영과 함께 자라난 대학생들입니다.》

서평양 하늘가엔 어느덧 불그스레한 저녁 노을이 곱게 단장되였다. 그 빛은 차츰 넓어져 푸른 숲처럼 신록이 우거진 모란봉 일대를 연한 불'빛으로 물들이다가 또다시 자리를 좁혀 간다.

《바로 저 학생이 리 효식 동무입니다. 몸이 가늘고 그렇게 실하게는 생기지 못했지요》

홍장 동무는 허리를 폈다. 그리고 일어선 자리에서 도랑밑의 한 학생을 가리킨다. 그는 방금 도관에



서 손을 떼고 흙탕 손으로 땀이 송글송글 내 돋은` 이마를 훔치고 있었다. 그의 몸은 홍장 동무의 말 그대로였다. 홍장 동무는 흙무지에 올라 탄채 걸음을 스적스적 옮겨 디디면서 말을 이었다.

《효식 동무가 한 일은 실로 컸습니다. 처음 오수 간선을 파 들어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였습니다. 일하고 들어온 첫날밤 어떤 동무들은 잠꼬대를 치리만큼 피곤을 느꼈으나 이튿날 작업에 나오지 않는 동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땅을 깊이 파들어 가면서부터 사정은 달라졌지요. 지금 다 파놓고 보니 5—6메터란 깊이가 대단한것 같지 않지만 팔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길을 파놓고 보니 그 다음부터는 삽질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힘은 종전보다 갑절이나 더 들곤 하였지요. 우리는 발판을 놓고 목도도 하고 또 질통도 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앞장에 나섰습니다. 육체적 단련이 비교적 적은 일부 동무들도 일이 힘에 겨웁기는 하였지만 누구하나 일에서 물러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때 모든 동무들의 가슴에 더욱 더 용기를 불어 넣은것은 효식 동무였지요. 하루는 내가 깊이 잠든 밤'중이였습니다. 누가 깨우길래 일어나 보니 나의 앞에는 효식 동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날밤 효식 동무는 나에게 자기가 창안한 새작업 방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천지치기란 작업 방법이였지요. 즉 두 사람이 긴 천을 들고 서 있고 한 사람이 아래서 거기에 흙을 한방 퍼 담습니다. 그러면 흙은 저절로 한길이나 높이 뛰여 올라 멀리로 달아납니다. 효식 동무는 이 작업 방법의 시험을 이웃 초중 학생들을 데리고 며칠 저녁 계속하다가 마침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제기했던 것이지요. 이 작업 방법은 성공적이였습니다. 이튿날 우리가 해보니 목도와 질통으로 흙을 담아내는 것보다 성적이 좋은데다 힘을 덜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알아볼 수 없지만 저기가 바로 우리들이 첫 천지치기 작업을 시작하던 곳입니다.》

홍장 동무는 손가락으로 그 곳을 가리켰다. 마침 이때 우리의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정치부 중대장 동무! 너무 자랑 마십시요》

하는 유순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어느새 저쪽 발판으로 해서 우리께로 돌아 왔는지 그는 효식 동무였다. 효식 동무는 홍장 동무에게 래일 할작업에 대한 분공을 오늘 해 놓고 숙소로 들어 가자는 얘기를 하고 나서 나에게

《기자 동무, 우리가 한 일은 참으로 보람차고도 크지요. 허나 당과 정부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항시 베풀어 주는 배려에 비하면 우리의 열메는 아직 자랑할께 못됩니다》

하며 얼굴 가득히 화색을 담는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린 이번에 하나의 불덩어리가 되여 당의 부름에 충실하였습니다.》하면서 이번엔 홍장 동무가 좀 흥분한 어조로 효식 동무의 말을 받았다. 《그러나 자랑할건 못됩니다. 당과 정부의 우리들에 대한 배려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지요. 우린 이런 배려에 보답하여 전시엔 총을 잡았고 지금은 로동의 영예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 며칠후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배움에 힘쓰게 되지요. 허나 우리의 모든 성과는 당과 정부의 배려에 비하면 아직 너무나도 작은 모래알이지요》

이것은 홍장 동무의 소박한 말이였다. 허나 어찌 그나 효식 동무만의 말이랴! 이들 대학생들을 국비로써 앞날의 어엿한 농산 기사로 육성하고 있는 어버이는 다름아닌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이다. 그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배려가 어찌 국비에만 한하랴! 당과 정부는 그들의 청춘을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고 따사로운 손'길과 자애로운 품으로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두터운 배려를 돌려 주고 있는 당과 정부를 신뢰하며 사랑하는, 높이 고동치는 심장이야말로 지금 그들로 하여금 당과 정부가 부른 평양시 복구 건설의 길에서 청춘의 억센 기백을 한 없이 떨치게 하고 있는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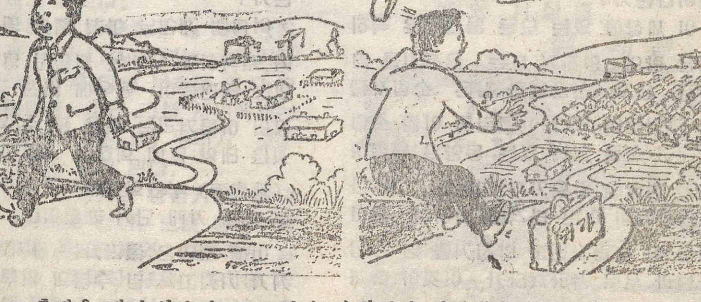
오, 당이여, 어버이 그대의 품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대학생들은 언제나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 불처럼 뜨거우며 그대를 신뢰하는 마음, 강철로 굳으리라!

노을이 사라지자 짙어가는 황혼 속에 민주 수도의 밤 하늘은 휘황히 밝아 오른다.

송 정

빠른 건설 속도

그림. 원 광수



—출장을 갔다 와야지 —야! 우리집이 어덴지 몰라 보게 되였는걸…



우뢰와 번개

여름철이 되면 우뢰와 번개가 자주 일어난다.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은 우뢰와 번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억측들을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신기할 것도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뢰와 번개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전기 현상에 불과하다. 전기에는 음전기와 양전기가 있다. 전선이 합선될 때 우리들은 불꽃과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름에도 음전기를 띤 구름과 양 전기를 띤 구름이 있는데 이 두개의 구름이 접근할 때에는 전선이 합칠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접근하여 충돌할 때 생기는 불꽃이 번개이고 전기에서의 잡음이 바로 우뢰인 것이다.

그러면 구름이 어찌하여 전기를 띠게 되며 또 그와 같은 발전 현상까지 일어나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극히 적은 량의 양전기 또는 음전기를 띤 분자, 원자, 전자들과 같은 소립자들로 구성되여 있다. 그런데 이들 소립자들이 서로 함께 있는 동안은 특별히 전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소립자들이 어떤 타격에 의하여 음전기를 띤 소립자들과 양전기를 띤 소립자들과 서로 갈라졌다가 이것이 합쳐질 때에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들도 그가 비교적 큰 물'방울로 공중에 떠 있을 때에는 아무러한 전기 현상도 나타내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강한 공기 흐름 등에 부닥쳐 극히 작은 물'방울로 되여 산산히 흩어지게 될 때엔 곧 음전기를 띤 물'방울과 양전기를 띤 물'방울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큰 물'방울의 파괴 과정이 수차 반복되는 과정에 한 구름은 음전기를 띤 물'방울로만 되여 구름덩어리 전체가 음전기를 띠게 되며 반대로 다른 구름은 양전기를 띠게 된다.

이때 구름 덩어리가 가지는 전기량이 많은가 적은가는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들의 파괴 및 분산 과정이 어느만큼 강하게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이런 공기의 상승(上昇)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며 구름의 형성 및 전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름철 개인날 아침 해가 땅을 쪼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평선 멀리 놓여 있는 물건들이 물우에 비친 그림자와 같이 아물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태양 열에 의하여 가열된 지표면(地表面) 부근의 더운 공기가 공중으로 올라 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토양은 올라가는 공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분의 일부분을 주게 되는데 공기는 그 수분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 가게 된다. 태양열에 의한 지표면의 가열이 심하면 심할 수록 더운 공기의 상승 속도는 더욱 커진다. 즉 때로는 1초 동안에 8메터 이상 상승하는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된다.

이런 빠른 속도로 상승 운동이 계속된다면 벌써 몇시간 후엔 큰 강물의 흐름보다도 더 큰 방대한 상승 기류를 이루게 되는데 이 상승 기류는 지표면에서 얻은 수증기와 함께 계속 상승하게 된다.

이 결과 공기는 점차적으로 랭각되는바 일정한 온도에까지 랭각되면 그 공기 속에 포함되여 있던 수증기는 물'방울로 되여 버린다.

지표면에서 가열된 더운 공기의 상승 운동은 태양이 계속 내려 쪼이는한 중단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기중에서의 물'방울의 형성은 계속되게 되며 이미 형성된 수 많은 물'방울들은 대기 상층을 향하여 뭉게뭉게 자라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흔히 보는 솜덩어리를 뭉쳐 놓은 것과 같은 흰 구름이다. 이런 구름을 기상학에서는 적운(積雲)이라고 한다.

적운 속에서의 상승 기류의 속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초 동안에 8메터 이상 되는만큼 물'방울들은 이 기류와 부닥치면서 보다 작은 물'방울들로 분산되게 된다.

이때 작은 물'방울들의 일부는 양전기를 띠게 되고 다른 일부는 음전기를 띠게 된다. 각각 다른 부호를 가진 전기가 증대됨에 따라 그들 사이에서는 방전 현상이 일어나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번개를 보게 된다.

이 번개는 음전기와 양전기를 가진 구름과 구름과의 사이, 또는 양전기를 가진 구름과 지표면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며 또는 동일한 구름 례하면 양전기와 양전기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번개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즉 번개가 치는 순간 그의 전압은 1억 볼트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반면에 그의 수명은 불과 몇천분지 1초 밖에 되지 않는다.

지구상 전체에서 일어나는 우뢰나 번개의 수는 막대하다. 그중에서 번개만을 조사해 본다면 그 수는 더욱 놀라리만큼 막대하다. 계산에 의한다면 매초당 지구상 전체에서는 약 100개의 번개가 번쩍이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우뢰나 번개는 적지 않게 관측되는데 통계에 의한다면 전 조선적으로 1년을 통하여 평균 483회에 걸쳐 관측되고 있는데 남반부와 북반부를 대비하여 볼 때 북반부가 다소 많은 편이다. 조선에서 우뢰나 번개가 가장 많은적은 6, 7, 8월인데 이때에는 월평균 60회 이상의 뢰전(우뢰와 번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현상이 관측된다.

번개나 우뢰는 여러 가지 대기 현상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다른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번개나 우뢰도 역시 그 현상들의 내막을 알고 보면 그다지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그의 해독적인 측면들과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

중앙 기상대
심 계 술



사회발전 이야기

노예사회 편

(전호에서 계속)

전문적으로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결과 인류 문화는 크게 발전하였다. 중국이나 애급에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내지 4000년 전에 벌써 비교적 정확한 력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형적인 노예 소유자 국가의 하나였던 고대 희랍에서는 기원전 5~4세기 경에 벌써 의학, 식물학, 지리학, 력사학, 수학 등 각종 과학이 찬란하게 발전하였다.

문'자도 노예 사회 시대에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맨 처음에 나타난 문'자는 그 대부분이 일종의 상형(象形)문'자였다. 중국 문'자의 (山)이라는 글'자는 산의 모양을, (牛)라는 글'자는 소의 머리의 모양을 각각 본따서 만든 것이였다.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자는 그림에서부터 발전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문'자는 상형 문'자에서부터 출발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해 오다가 결국 고대 동방 여러 나라에서는 표의(表意)문'자가 나타났고 희랍이나 로마에서는 표음(表音) 문'자가 나타나게 되였다.



※ 상형(象形) 문'자

노예 사회에서는 문화도 매우 발전하였다. 오늘날 까지도 남아 있는 희랍이나 로마 시대의 궁전이라든가 신전 등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아서 우리는 그 당시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예 사회에서는 원시 사회에 비하여 회화라든가 조각 등 예술 창작 수준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 노예 사회에서의 회화와 조각

즉 노예 사회 시기에 달성한 회화, 조각 등 예술 부문에서의 성과는 그후 예술 발전을 위한 귀중한 유산으로 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예 사회에서는 비록 생산력이 발전하고 문화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그러나 노예 사회 자체 내에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차 있었다.

노예 사회에서의 기본 모순은 생산을 직접 담당할 노예들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예 자신들이 노예 소유자들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여 있었다는 점에 있다. 노예 사회에서의 이러한 기본 모순은 노예 소유자들과 노예들간의 계급적 모순으로 나타났다.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를 강제로 일 시켰으며 또한 노예들은 아무리 일을 하여도 그들에게 차례지는 것은 생산물 대신에 몽둥이와 굶주림 뿐이였다. 때문에 노예들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기본 동력으로 되는 로동 도구를 개량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틈만 있으면 로동 도구를 파괴하군 하였다.

또한 값싼 노예들을 대량적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 소유자 자신들도 생산에는 직접 관계하지 않고 다만 정치나 과학이나 예술 같은 일에만 종사하면서 로동 도구의 개선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한 후 노예 제도하에서는 로동 도구가 더는 발전할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생산력도 더는 발전할 수 없었다.

노예 사회에서 과학도 상당한 수준에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과학과 기술은 생산

과는 동떨어져 있었는바 즉 노예 소유자들은 과학을 군사 방면에만 리용하였을 뿐 생산에다 이를 끌어들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결과 노예 제도하에서는 과학 기술도 더는 발전할 수 없게 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노예 사회는 필연코 멸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른 사회로 교체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였다.

노예 사회가 쇠약해 짐에 따라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들을 더 가혹하게 억압 착취하였다. 먹을 것을 변변히 얻어 먹지 못하고 힘에 겨운 강제 로동을 강요 당하는 노예들은 수 없이 쓰러지군 하였다. 그리하여 도망하다 붙잡혀 죽는 것이나 앉아서 노예 소유자들에게 맞아 죽는 것이나 죽는 데는 매일반이니 이왕이면 도망하다 보자는 생각으로 노예들은 기회만 있으면 도망하군 하였다. 게다가 노예들은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렬은 뿔어나기는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줄어만 갈 뿐이였다.

노예 사회는 노예를 부단히 생산에 끌어들임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대량적인 노예의 보충은 전쟁에 의하여서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전쟁에 참가하는 군대의 중요 성원들인 자유민들이 노예 소유자들의 대규모적인 경리와의 경쟁과 계속되는 전쟁, 과중한 납세, 그리고 고리 대금 등 가혹한 착취의 결과에 몰락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노예 사회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군대에 참가할 자유민의 수효가 줄어들게 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노예를 획득할 수가 없게 되였다.



※ 노예들이 로동 도구를 파괴하고 있다

노예의 원천이 없어지면서 노예의 값이 비싸지게 되여 노예 로동에 의한 대규모 경영은 수지가 맞지 않게 되였다. 그리하여 노예 소유자들은 하는수 없이 노예를 석방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들은 대규모적인 농장의 땅을 조금씩 노예들과 자유 소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그 대'가로서 전 수확의 거의 전부 즉 6분지 5정도의 생산물을 략탈하였다. 심지어 노예 소유자들은 토지를 팔 때에 경작자까지도 함께 팔군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경작자들은 신분적으로는 자유를 얻지 못하였으나 벌써 종전의 노예와는 구별되는 《농노》였다. 이리하여 노예 사회의 내부에서는 농노와 봉건 사회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 노예 사회가 망해 감에 따라 노예들을 더 착취하였다

그러나 《농노》에 의한 생산은 싹트기 시작하였을 뿐이고 노예에 의한 대규모 생산은 극도로 축소되였다. 즉 대규모의 농장과 수공업소들이 몰락하였고 이에 따라 상업과 도시도 몰락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노예 소유자들의 부화 방탕한 생활은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였으며 그들은 이러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예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였다.

노예 대중은 이 고통스러운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노예 소유자들을 반대하는 결사적 투쟁에 궐기하였다. 즉 노예 대중은 도처에서 감시인을 죽이고 노예 소유자 국가와 군대에 반항하여 폭동을 일으키군 하였다, 몰락당한 자유민, 빈민, 그리고 소농민들 까지도 노예들의 폭동에 호응하여 그들과 함께 노예 소유자들을 공격하여 나섰다. 이리하여 노예의 폭동은 노예 사회를 뿌리채 뒤 흔들어 놓는 혁명 투쟁으로 확대 발전되여 갔다.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적이며 유명한 노예 폭동은 로마의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령도한 폭동이였다. 스파르타쿠스의 폭동군의 참가자 수는 10만을 훨씬 넘었고 그들은 여러차례나 로마 제국의 군대를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3년간에 걸쳐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스파르타쿠스 폭동군도. 노예 사

회인 로마 제국을 약화시키기는 하였으나 멸망시키지는 못하였다.



※ 노예들은 폭동을 일으켰다

노예 폭동에 의하여 극도로 약해진 로마 제국은 북방으로부터 침입해온 의종족의 공격과 이에 합류한 노예와 소농민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더는 노예 사회를 유지하지 못하고 드디여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노예들은 새로운 사회를 조직할 명확한 목표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또 폭동을 지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한 탓으로 하여 대규모적인 노예 폭동도 노예 사회를 다른 사회로 교체해 놓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노예들의 폭동도 그 자체로서는 자기의 해방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북방으로 부터 침입해 온 의종족들의 침입과 함께 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계급으로서의 노예들은 노예 소유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듯 전형적인 노예 사회인 로마 제국이 멸망함으로써 노예 사회 시기는 끝나고 인류 사회는 다음 단계 즉 봉건 사회로 들어서게 되였다.

(유) (모)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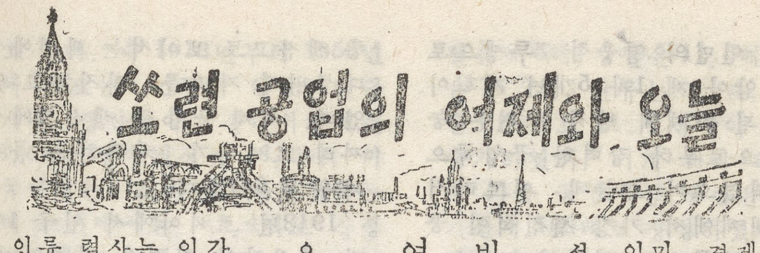
미성년



— 그래 넌 남 부끄럽지 않니, 니꼴라이? 80일 밖에 벌지 못했다니. 네 할아버지는 320일이나 벌었는데—

— 그러문요. 할아버진 벌써 예순살이구 난 겨우 스무살 밖에 되지 못한걸요.

쏘련 공업의 어제와 오늘



오 영 빈

인류 력사는 인간의 창조력이 얼마나 위력한 것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력은 언제나, 그 어디서나 충분히 발휘된 것은 아니다.

수만년의 인류 력사를 통하여 인간 창조력의 위대성을 진실로 가장 뚜렷이 보여 주기 시작한 것은 쏘베트 사람들이다.

10월 혁명후 지난 40년 간에 쏘베트 인민은 전 세계 인민이 그때마다 경탄해 마지 않은 수다한 창조의 기적을 낳았다.

쏘베트 인민들이 발휘한 창조적 위력은 무엇 보다도 오늘의 쏘련 공업을 10월 혁명전 로씨야의 그것과 대비하여 볼 때 아주 명백히 나타난다.

짜리 로씨야가 멸망한 때로 부터 시간상으로는 40년이 지나 갔다. 그러나 쏘련의 공업에서 이루어진 변화로 보아서는 이 기간은 40년이 아니라 백년 내지는 그 이상에 해당한다.

그처럼 쏘련의 공업은 쏘베트 주권 시기에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우선 인민 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의 구성 상태로 보아 또 그러하며, 공업 생산고와 공업의 기술적 장비 수준으로 보아 그러 하다.

짜리 로씨야는 경제적으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에 예속된 락후한 농업국이였다.

1913년 짜리 로씨야의 인민 경제 총 생산액 중에서 공업 생산물은 다만 42.1%를 차지하였을 뿐이다. 공업과 건설에 종사하는 로력자는 전체 로력자 수의 9%에 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락후한 공업 중에서도 중공업이 특히 더 락후하였다. 중공업의 락후성으로 말미암아 짜리 로씨야는 국내에서 소요되는 기계 및 시설품의 거의 절반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게다가 인민 경제 주요 부문의 60~90%는 외국 자본이 차지하고 있었다.

10월 혁명후 나라의 이와 같은 경제적 락후성과 예속성은 급속히 청산되였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쏘련 인민의 영웅적 투쟁으로 말미암아 제 1차 5개년 계획이 완수된 그때에 벌써 쏘련은 농업국으로부터 강력한 공업국으로 되였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공업의 강국으로 되였다.

현재 쏘련의 공업과 건설 부문에는 전체 로력자수의 31%가 종사하고 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1955년말 현재로 공업 총 생산에서 생산 수단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쏘련은 기계 및 시설품을 수입하던 나라로부터 그것을 다량 수출하는 나라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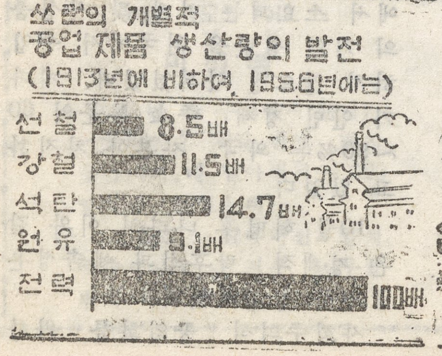
나라가 고도로 공업화됨에 따라서 공업 생산이 눈부신 속도로 장성하였다.

짜리 로씨야는 면적상으로는 세계 1위, 인구상으로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공업 총 생산고로 보아서는 세계에서 다섯.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계 공업 총 생산고에서 짜리 로씨야가 차지하는 몫은 겨우 2.6%였다.

1913년 로씨야에서 인구 1인당 생산량이 전력은 미국의 17분지 1, 강철 선철은 미국의11분지 1, 석탄은 미국의 26분지 1이였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사태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되였다. 현재 쏘련은 공업 총 생산고로 보아 세계 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 쏘련은 세계 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55년도에 쏘련은 세계 석탄 총 생산량의 18%, 선철 및 강철 총 생산량의 17%, 뜨락또르 총 생산량의 30%, 면포 총 생산량의 26%를 생산하였다.

인구 1인당 생산량의 장성 속도에 있어서 쏘련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훨씬 릉가하





고 있다. 즉 1913년부터 1955년에 이르는 기간에 인구 1인당 제품 생산량이 불란서에서는 1.6배, 영국에서는 1.8배, 미국에서는 2.3배로 장성하였는데 쏘련에서는 19.4배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인구 1인당 제품 생산에 있어서 쏘련이 가까운 장래에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 잡으며 앞서게 되리라는 것을 똑똑히 보이여 주고 있다. 쏘련은 인구 1인당 우유 및 빠터 생산에 있어서는 1958년도에, 육류 생산에 있어서는 1960—1961년도에 미국을 따라 앞서게 될 것이다.

10월 혁명 후 쏘련 인민들의 공업 분야에서 어떠한 비약을 이룩하였는가를 개별적인 공업 제품 생산량의 장성에서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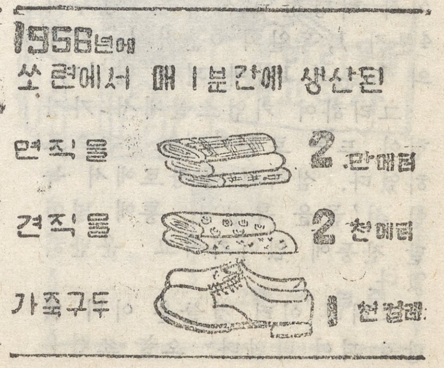
혁명전 1913년에서 1956년에 이르는 동안에 쏘련에서 선철은 8.5배, 강철은 11.5배, 석탄은 14.7배, 원유는 9.1배, 전력은 100배로 그 생산량이 각각 증가하였다.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제품 생산은 같은 기간에 180배로 장성하였다. 혁명전에는 전혀 생산하지 못하던 자동차를 1956년에는 46만 5천대, 뜨락또르를 130만대를 각각 생산하였다.

1913년에 로씨야에서는 인구 1인당 16메터의 면직물과 기타 마직물, 견직물, 모직물을 합하여 인구 1인당 17.9메터가 생산되였다. 그러나 지난해에 쏘련에서는 인구 1인당 면직물만 27메터를 생산했고 기타 마직물, 견직물, 모직물을 합친다면 34메터가 생산되였다.

쏘련의 공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여 주는 다른 례를 들어 보자.

쏘련에서 1920년 1년간에 생산하던 강철을 1955년에는 24





시간만에, 석탄은 192 시간만에, 석유는 480 시간만에, 전력은 24시간만에 각각 생산하였다.

오늘 쏘련에서 평균 매 1초동안에 생산되는 선철은 1.1톤, 강철은 1.5톤, 석탄은 13.6톤, 석유는 2.6톤에 달한다. 1960년에 가서 쏘련은 영국, 불란서, 서부 독일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량의 강철, 전력, 세멘트 및 연료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에 쏘련에서 매 1분간에 생산된 면직물은 2만 메터, 견직물은 2천메터, 가죽 구두는 1천 켤레에 달하였다.

제 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쏘련에서는 력사상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비상히 높은 속도와 큰 규모로 기술이 발전되였다.

짜리 로씨야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기술적으로도 몹시 뒤떨어져 있었다. 현대적 생산 도구의 장비에 있어서 혁명전 로씨야는 영국의 4분지 1, 독일의 5분지 1, 미국의 10분지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기업소들에서 가장 힘이 드는 로동까지도 손으로 하였다. 심지어 용광로에서 녹인 쇠'물을 특별한 통에 넣어 말 잔등에 얹어가지고 운반하였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옛말로 되여 버렸다. 오늘 쏘련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뒤로 떨어뜨리면서 원자력 시대의 선진 공업 국가답게 기술 발전의 최선단에 서서 나가고 있다.

세계에서 쏘련처럼 그렇게 원자력이 평화 산업에 광범히 리용되는 나라는 없으며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가 그렇게 광범하고 민속하게 생산에 도입되는 나라는 없다. 오늘 쏘련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기계 및 설비품이라고는 없다. 1956년 한해 동안에만 새로운 기계, 기대 및 시설이 1천 종 이상이나 발명, 설계되였으며 자동 콤베야 계렬이 1천 5백개 이상이나 도입되였다.

강력한 기계 제작 공업에 기초하여 공업과 건설에서 기계—자동화 수준이 급속히 높아 가고 있다. 로동자들은 일체 힘든 로동에서, 지어는 경로동에서 까지도 해방되고 있다. 실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생산이 완전히 자동화 된 쏘련의 어느 한 공장에서는 로동자의 힘을 전혀 빌지 않고도 보통 공장에 비하여 9배의 생산 능률을 올리고 있다. 쏘련에서 날로 광범히 리용되고 있는 원자력 기구, 반도체 기구, 텔레비죤, 전자 계산기, 초음파 탐지기, 엑쓰 광선 등은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10월 혁명 후 지난 40년간에 쏘련의 공업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는 이러하다. 그런데 이 변화는 실제에 있어서는 20년 남짓한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 하면 혁명후 40년간 중에서 적어도 18년간 이상은 전쟁과 그 후의 인민 경제 복구에 소비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쏘련의 공업은 조금도 멈춤 없이 계속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쏘베트 사회에는 그것을 저애할 아무런 본질적인 조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금번 실시된 공업 및 건설 관리 조직의 개편은 쏘련의 공업 발전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다.

제 6차 5개년 계획이 완수되는 1960년에 가서 쏘련의 공업 생산량은 1940년에 비하여 5.3배로, 1913년에 비하여서는 40배로 장성될 것이며 공업의 기술 장비 수준이 현저히 제고될 것이다.

10월 혁명후 쏘련의 공업 발전과 그의 금후 전망에 관한 이 모든 사실은 인민이 정권을 자기 손안에 틀어 쥐고 착취자들이 없이 사회주의적 원칙 우에서 경제를 운영할 때 그가 얼마나 거대한 창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어데까지나 쏘련의 기본 건설 경험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는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그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길에 확고히 들어 선 우리 인민의 앞날이 얼마나 광명한 것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만)(화) 말공부쟁이



그림, 리 영준



베. 뽈레보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마뜨웨이 꾸즈민을 은사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그는 마을에서 멀죽이 떨어진 수풀 언저리에 외따로 서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워낙 성깔이 까다롭고 무뚝뚝 하여 좀체 남과 얼리지 않는 그는 언제나 구식총을 어깨에 메고 개를 벗삼아 수풀과 진펄들을 헤매기를 좋아 하였다. 나무가지들에 새 싹이 트고 눈녹은 수풀속에 새들이 짝을 부르는 봄철이면 꾸즈민은 항상 오막살이를 걸고 고아가 된 손자 봐샤 (그는 조부와 같이 살고 있었다)를 거느리고 먼 숲과 호수'가로 가서 거기서 줄곧 수주일을 머무는 것이였다.

꼴호즈원들은 유별히 그를 꺼리지도 않는 반면에 그를 리해하거나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 늘 외따로 돌고 말도 없고 인적 없는 수풀만 헤매는 이 로인의 마음은 아무도 알 길이 없었다. 게다가 이 사냥'군의 탐욕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있었다. 그는 여든살의 고령으로 꼴호즈 직이'군 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 촌구의 아무도 마뜨웨이 할아버지와 그의 맹견 《샤리끄》가 감시하는 농장 재산을 감히 침해하려 드는 자는 없었다.

드디여 참담한 전화가 뷜리끼예루끼지구에 미치였다. 이 촌구에 배치된 독일 산악 소총사단의 스키 대대가 꼴호즈 《라쓰웨뜨》(새벽이라는 뜻 역자주)에 숙소를 정하였다. 어떤 자가 이 우울하고 무뚝뚝한 령감을 대대장에게 귀틈하였다. 그래 그놈은 마뜨웨이야 말로 촌장 자리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라 판단하였다.

마뜨웨이 꾸즈민은 새 꼴호즈 관리소에 들어 있는 독일 지휘관에게 불려 갔다. 그는 독일산 쁘란디와 촌장의 감투를 받았다. 로인은 장교에게 치사를 드리고 나서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구실로 술을 사절하였다. 그리고 또 나이 많고 귀가 멀고 잔탈이 많다는 핑게로 촌장의 감투까지 고스란히 도로 바쳤다.

독일놈들은 꾸즈민을 그대로 놓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령관의 포고에 의하여 반환하게 된 헌 총을 갖다 바쳤을 때에는 깍듯한 호의까지 보여 주었다.

독일놈들은 이른 봄에 이 호수 지구에서 공세를 취하기 위하여 군대를 재 편성하게 되자 문뜩 꾸즈민을 생각해 냈다. 소총사단이 전선으로 이동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꼴호즈 《라쓰웨뜨》에 주둔하고 있던 스키대대는 전투를 피하면서 수풀과 진펄들을 밀행하여 쏘련군 진지에 도달해 가지고 고스부노부 장군 휘하의 최전초 부대들을 후면으로부터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풀'길을 잘 아는 길잡이가 한 사람 필요하였다. 그런데 마뜨웨이 할아버지보다 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그 길들을 수없이 헤매였으며 온갖 진펄이며 소나무며 돌맹이며 그리고 심지어 사냥'군만이 알 수 있는 신비스러운 수풀의 비밀들의 하나하나까지 낱낱이 알고 있었다.

대대장은 로인을 불렀다. 그리고 비밀히 야간 행진을 하여 저희 군대를 쏘련군 진지 후면으로 인도하라고 강청하였다. 만약 거절한다면 총살할 것이고 그 반대로 명령을 실행한다면 돈과 밀'가루와 석유와 그리고 가장 유혹적인 유명한 독일 제2련렵총 《세 가락지》를 주겠노라고 했다.

마뜨웨이 꾸즈민은 다 헤여진 양피 벙거지를 구깃구깃 구기지르면서 묵묵히 장교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찌로 강철 총신이 해'발에 진주모 같이 반짝이는 그 총을 흘깃흘깃 흘겨 보았다. 장교놈이 짜증을 내며 손가락 마디로 책상을 꽝꽝 두들였다.

그의 운명도 대대의 운명도 그리고 세밀히 계획을 짠 전체 작전의 성과 여부도 모두 이 무뚝뚝하고 리해할 수 없는 사나이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집요하게 총을 노리는 사냥'군의 곁눈질을 가로 채면서 그는 이 무뚝뚝한 수풀 사람의 마음을 속뽑아 보려고 애썼다.

《거 참 좋은 총입네다》하며 꾸즈민은 흘끔 장교에게 곁눈질을 하고서 뻿뻿한 손가락으로 총신을 토닥토닥 두들이면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가외루 돈두 주시겠소. 나리님》

《아하》장교는 반색을 하며 통역에게 소리쳤다. 《저 로인에게 당신은 실제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시오. 좋소. 그리고 독일 사령관은 실제적인 사람을 존경하며 그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히 대한다는 것을 말해 주시오》 장교놈은 환성을 올렸다. 드디여 믿을만한 길잡이를 구한 것이다. 허나 기실은 길잡이를 구한것 보다 기쁨이 더 컸다. 참담한 전화속에서도 오히려 쾌활하고 호사스럽던 불란서에 오래'동안 주둔해 있다가 이 춥고 음침한 수풀 속에서 다섯달 동안이나 지나고 보니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 리해할 수 없는 쏘베트 사람들과 음침한 땅을 두려워 하기 시작한 것이였다. 매 언덕과 덤불과 등걸마다 저격병이 숨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에서도 옷을 입은채 베개밑에 권총을 재워 놓고 자지 않으면 아니되는 이 인적 없는 산림 지대가 한없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돈, 돈이다! 분명 요놈은 여기서도—적군이 다가오는 것만 봐도 제손으로 집에 불을 놓는 이 괴

상한 《광신자》들 사이에서도 위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저 늙은 것만 해도 그렇지 않는가. 행여나 보수를 속일까바 열마나 조심스러운 눈찌로 찬찰히 끔새보고 있는가.

《저 로인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겠다고 말하시요. 천루불을 주겠다고!》 장교놈이 성급히 말을 덧붙였다.

로인은 통역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불현듯이 텁석한 은색 눈'섭 밑으로 쌀쌀한 시선을 장교에게 던졌다. 그리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가 대답하였다. 《녹습메다. 당신은 아주 헐값으루 나를 매수할 작정 같소이다.》

《천 오백루블 아니 이천루블 주겠소》《그럼 반액은 선금으로 줍쇼. 나리님》 통역과 뭐라고 수군 수군 거리더니 이윽고 장교놈이 조심스레 돈을 세여 내놓았다. 로인은 마디가 굵고 심술이 우틀두틀한 손으로 그것을 끌어모아 가지고 벙거지 안테 속에다 아무렇게나 짓쑤셔 넣었다.

《좋습메다. 나허구 승냥이 외에는 아무두 모루는 비밀 길로 당신들을 안내해 드리리다. 헌데 대체 어데로 가시려는지 똑똑히 말씀해 줍쇼》 지휘관은 지도를 가리키며 지명을 대 주었다.

《그것은 환 하외다. 제가 늘 여우를 잡던 뎁죠. 아침까진 꼭 당두룩 해드리리다. …헌데 저 그 총 말씀이죠. 헤헤… 건 룽으루 허시문 안됩메다 나리님》

끌호즈원들은 그가 여니때나 다름없는 무뚝뚝한 표정을 해가지고 남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텁수룩한 수염 속에 미소를 가리우면서 독일 장교놈의 집을 물러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남들이 귀'속말로 쏘군거리는 욕설을 듣자 재'노란 이'발을 드러내고 걸 웃음으로 대'구하였다. 그리고 전 끌호즈 장부 계원이 그를 뒤좇아 가면서 독일놈과 은근히 지내는놈 집에는 불을 놓겠다고 위협하니까 그는 눈도 깜짝 아니하고 천연스레 중얼거렸다.

《자네 에미한테 가서 코'물이나 훔쳐 달라게.》

멀축암치서 마뜨웨이네 작으마한 집을 감시하고 있던 끌호즈원들은 약 반시간 후에 등에 배낭을 진 봐샤가 샤리끄를 데리고 초원을 달음질쳐 수풀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또 마뜨웨이 로인이 발대기에 솜을 넣은 수렵용 스키를 끌어내여 가지고 곰'기름으로 반질반질하게 문지르면서 독일 장교놈이 들어 있는 집쪽으로 연신 곁눈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편 독일놈들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교놈은 파르스럼한 카바이트 등'불 앞에 앉아서 싹쏘니의 광학 기계 제작소에 기사로 있는 아우 월헤름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는 썼다.

《사랑하는 월리—

나는 이 편지를 한달전부터 쓰기 시작했으나 입때 다 쓰지 못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실상인즉 어떻게 소일해야 할지 모를 만큼 시간은 충분했었다. 우리는 이 저주로운 산림 속에 배치된 이래 수개월 간이나 한결 같이 지긋지긋한 훈련만 넌더리 나도록 되풀이 하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소용 없게 되였다. 로씨야놈들이 전쟁을 꺼꾸로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싸움터로 나간다. 그래 나는 또 한번 내 운명을 시험해 보기전에 이 편지를 다 쓰련다….

나를 축하해 다오. 나는 오늘—뜻밖에 대 승리를 얻은 것 같다. 사실을 고백하마. 나는 우리를 이처럼 괴롭히는 그 저주롭고도 기괴 망측한 로씨야 정신의 열'쇠를 발견했다. 그것은 모든 우리 구라파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준 바로 그 낡은 열'쇠이다. 조금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돈—사랑하는 아우여, 평범한 이 돈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우리가 피물을 쓰지 않고 그저 히틀러의 자동총수만 가지고 이 쏘베트 로씨야 놈들을 정복하려든 것은 큰 오산이야. 그런데 지난 정월에 써 보낸 사냥'군 이야기를 너두 기억하겠지. 똑 리야왕 같이 생긴 늙은인데 이름은 고만 잊어 버리고 말았다. (로씨야놈들의 이름은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오늘 나는 그 늙은이를 시험한 결과 대 성공을 거두었다. 체면상 처음에는 주저해 보였으나 이내 우리들을 안내해 주기로 동의했어… 그런데 방금 쿠르트가 와서 보고 하기를 대대의 출발 준비가 다 됐다니까 아마도 나머지 사연은 다음 시간에 써야겠다.》

스키 대대는 무장을 완전히 갖춘 다음 기관총들을 썰매에 싣고 해질녘에 마을을 떠났다. 이윽하여 그들은 큰 길을 버리고 수풀 속으로 사라졌다.



마뜨웨이 꾸즈민은 종대를 인솔해 갔다. 그는 자기 손으로 만든 스키를 타고 대담한 사냥'군 버릇대로 마구 달렸다. 어둠이 깃들었다. 펑펑 함박눈이 쏟아져 내렸다. 이윽고 지척을 분별할 수 없는 어둠이 깃들었다. 늙은 사냥'군은 처녀림 속으로 그냥 뛰여 들어 갔다.

대대는 밤새도록 눈무데기를 헤치고 단단한 눈판을 넘으면서 행군해 갔다.

그들은 숫한 개골창과 언 하천들을 지나 잡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총림 속으로 뚫고 들어 갔다. 장교놈들은 연신 라침판을 꺼내 들고 마뜨웨이를 불렀다

그리고 통역을 시켜 왜 길이 변했으며 어째서 이렇게 개미 쳇바퀴 돌듯 빙빙 돌기만 하는 것이며 언제쯤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마다 마뜨웨이는 천연덕스레 이렇게 대'구하는 것이였다.

《온 나리님두 수풀에 웬 큰 길이

있겠쏘이까 참으십쇼. 아무튼 아침까진 꼭 닿게 해 드리오리다.» 하곤 그는 도리여 장교에게 약속한 총을 다짐 받는 것이였다.

무기와 탄약들을 잔뜩 질머진 독일놈들은 이 끝없이 넓은 원시림속을 헤매는 동안에 차차 기진해 갔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놈들은 나무에 부딪치고 덤불에 할키우고 저희네 스키에 곱드러지면서 다시 일어서느라고 죽을 고생들을 했다. 놈들은 이 밤의 적막 속에서 위혁하듯이 고요히 속삭거리고 있는 끝없는 수풀이 일부러 길에다가 눈무데기를 쌓아 놓고 날카로운 가시 손톱으로 군복을 팍팍 붙잡는양 싶었다. 그리하여 쉴새 없이 고함치는 오장의 호령도 이미 지치고 흩어진 종대 행렬들을 바로 잡을 수가 없었다.

동녘이 붉그스레 해졌을 무렵 선두는 드디여 수풀 가장자리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깊숙한 개골창에 덤불이 무성하게 우거진 공지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이럭저럭 다 왔소이다. 이 마뜨웨이 꾸즈민은 제 직분을 잘 알구 있습네다.» 하고 로인은 말하였다.

그는 벙거지를 벗어 들고 민머리의 땀을 닦았다.

기진 맥진한 장교놈들은 눈 우에 펄썩 주저 앉아서 감각을 잃고 오들오들 떠는 손가락으로 신경질을 내면서 간신히 담배들을 피웠다. 오장놈은 행군시 남루해진 흰 위장만트를 입고 뿔뿔히 흩어진 병졸들을 한데 모으느라고 연신 꽥꽥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한편 마뜨웨이 꾸즈민은 둔덕에 올라 서서 눈에 덮인 훤한 벌판 저넘어로 붉그스레 떠 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 보면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연신 독일놈들을 곁눈질 하면서 대담스레 비웃적 거리는 것이였다.

고요한 서리 어린 아침이였다. 눈이 스키 밑에서 뿌드득 뿌드득 바스러졌다. 살이 통통하게 찌고 젓가슴이 빨간 솔새들이 부지런히 솔방울을 쪼으면서 덤불 속에서 재살재살 지저귀고 있었다. 어데선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다.

«이 마뜨웨이 꾸즈민은 제 직분을 잘 알고 있사외다.» 하고 로인은 되뇌였다.

험석한 아래'수염 속에서 싹터 오르는 승리의 미소가 그의 두 뺨에 열기 설기 얽힌 깊은 주름'살들에 쭉 번지면서 음침한 얼굴을 환하게 비쳤다.

별안간 기관총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총알들이 웽웽 울면서 운모같이 반짝이는 눈'가루를 분수처럼 튀겼다. 총성이 련방 수풀을 울렸다. 흔들거리는 나무 가지들에서 서리가 스르르 떨어졌다.

기관총들은 직사를 계속하면서 바싹 바싹 다가 왔다. 스키병들은 위치를 잡을 사이도 없이 푹푹 언 눈우에 주저 앉은채 그저 당황 망조할 뿐이였다. 한편 기관총들은 눈에 덮인 들판을 요란하게 울리면서 놈들의 종대를 량면으로부터 압축시키며 맹렬한 십자화를 퍼부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독일놈들이 수풀을 향하여 우르르 내달렸다. 그러나 벌써 덤불 후면에서는 성낸 자동총들이 일제히 뚜루룩 거리고 있었다.

놈들은 공포의 아우성을 지르며 스키들을 벗어 팽겨치고 눈우에 넘어지면서 우 공지 가장자리로 되몰려 들었다.

남루한 위장만트들이 반짝이는 눈우에 점점이 흩어졌다. 그러자 정신이 난 장교놈이 후다닥 로인에게로 뛰여 갔다.

마뜨웨이 꾸즈민은 벙거지를 벗은채로 둔덕우에 우뚝 서 있었다. 그의 긴 아래'수염과 민머리 둘레에 겨우 남아 있는 회색 머리카락들이 바람에 펄펄 나붓기였다. 생기에 가득 찬 그의 두 눈은 텁수룩한 눈'섭 밑에서 조롱하는듯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못 상쾌한 눈찌로 놀랜 양처럼 방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독일놈들을 찬찬히 바라 보고 있었다.

장교놈의 머리털이 모자 밑에서 송두리채 곤두섰다. 그놈은 이 죽음의 공지 한 복판에서 넌지시 기쁨을 누리고 서 있는 이 수풀의 사나이를 잠시 형용할 수 없는 공포로 노려 보았다. 이윽고 그놈은 입시울을 실룩거리면서 권총을 꺼내여 들고 로인의 앞 이마를 똑바로 겨누었다.

마뜨웨이 꾸즈민은 그러나 조롱하듯 껄껄껄 비웃으면서 태연히 그놈의 상판에 대고.

«이놈아! 이 늙은 것을 돈으로 사렸댔느냐?… 네놈부터 판단해 보구 남을 판단해라. 이 파시스트 놈아!…»

로인은 벙거지 안페 속에 넣어둔 백루블 지페들을 덤석 움켜 쥐고 장교놈의 상판에다 핵 끼얹고 나서 태연히 등을 돌렸다. 그는 기관총수들이 단일을 념려하여 자기가 서 있는 둔덕을 사격 아니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안 독일놈들은 둔덕을 타고 수풀 쪽으로 내달렸다. 놈들 중의 몇놈은 이미 마지막 눈무데기를 타넘고 무사히 수풀 가장자리에 닿았다.

마뜨웨이 꾸즈민은 털 벙거지를 휘휘휘 두르면서 소리껏 웨쳤다.

«여보게들, 이 마뜨웨이 념려는 말게! 놈들에게 불벼락을 주게! 놈들을 한놈이라두 놓치지 말게! 이 마뜨웨이는…»

별안간 고함 소리가 뚝 끊어 지면서 그는 음! 하고 땅우에 나가 쓰러졌다.

독일 장교놈의 총알에 맞은 것이였다. 장교놈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나 채 두 걸음도 발을 떼기 전에 기관총수들이 그놈을 꺼꾸러뜨리고 말았다.

먼 개골창에서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면서 점점 더 높아져 갔다. 자동총수들이 수풀 가장자리로 돌진하였다. 그들은 련발 사격을 하면서 단숨에 공지를 돌파하고 독일 패장병놈들을 추격하며 총알을 우박처럼 퍼부었다. 그들은 적을 추격하며 항복시키고 무장을 해제시킨 다음 눈자국을 따라 수풀 속으로 뛰여 들어 갔다.

쏘베트 군대에 경고하기 위하여 마뜨웨이 로인이 보낸 그의 손자 봐샤 꾸즈민은 자동총수들과 함께 적을 추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바로 뒤에는 성낸 샤리끄가 숨을 헐떡거리며 뒤따르고 있었다. 샤리끄는 깊은 눈 속을 헤치면서 미친듯이 짖었다. 별안간 샤리끄는 걸음을 멈추고 두 귀를 바짝 쳐들었다. 이때 수풀 속에서 가슴을 어이는듯 한 긴 비명 소리가 요란한 결투의 고함소리와 함께 울려 왔다.

이것이 뷜리끼예 루끼지구(지금은 아마 생산지로 유명하다)에 있는 꼴호즈 «라쓰웨뜨»의 꼴호즈원인 마뜨웨이 꾸즈민의 긴 일생의 최후이였다.

그는 로바뜨강의 높은 방축 우에 매장되였다. 군관과 똑 같은 군대 대우를 받았으며 세 발의 조포가 광대한 흰 벌판 사이에 안치된 새 갈색 무덤우에 은은히 울렸다.
그날 저녁 사단 정보 부장은 독일놈들의 시체에서 발견된 서류들을 조사하던 끝에 독일 장교놈이 쓴 이제는 싹쏘니의 웰헤름 슈타인 기사도 영원히 받아볼 수 없을— 편지를 읽었다.

(박 시환 역)

(우화) **곰의 모자**

한 곰이 자기 머리에 맞는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산중에 모자점을 차려 놓았다. 상점문이 열리자 손님들—코끼리, 사자, 산'돼지, 여우, 산양, 다람쥐 등이 무리를 지어 찾아 왔다. 곰은 손님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하면서 그들의 머리에 일일히 모자를 씌웠다. 그러나 손님들의 머리에 맞는 모자라군 하나도 없었다. 크지 않으면 작았다. 그래서 곰은 모자를 서로 바꿔 손님들의 머리에 씌워 보았다. 그러나 역시 맞는 모자는 없었다.

《어째서 하나도 맞는 것이 없소?》

하고 손님들은 곰을 원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곰은

《뭐, 하나도 맞지 않아요?》

하고 그들의 말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직접 모자를 하나씩 번갈아 써 보았다. 이런 후에야 비로소 곰은 모자가 자기에겐 맞지만 손님들의 머리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 머린 우리와 크기가 같지 않소. 그리고 우리 머리들도 각각 다르오》

하면서 손님들은 곰을 비웃었다.

곰은 손님들의 바른 말 앞에서 두 손을 바짝 들었다. 그러나 마치 자기를 비호라도 하는듯

《쯧! 그런 소리들 마시오. 그런데 왜 당신들의 머리는 내 머리와 같지 않소?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소!》

하면서 투덜거리였다.



편집 위원 김 학 연(주필)
김 상 민 김 수 백 박 춘 실
양 동 섭 조 채 현 현 영 호

청년 생활 제 7 호 1957년 7월 5일 인쇄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1957년 7월10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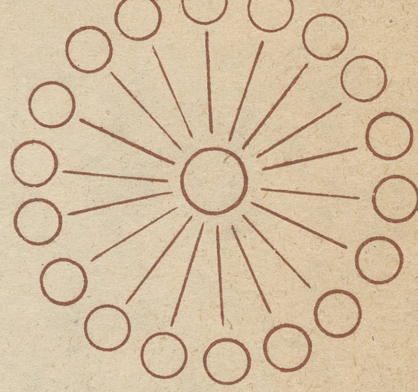
인쇄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25원) ㄱ—40536 50,000부



하나에서 열아홉까지

(실내 오락)

1에서 19까지의 수'자가 있습니다. 그 수'자를 다음 그림의 공란에 하나씩 넣어서 중심에 있는 수를 포함한 일직선 상에 놓인 세개의 수의 합이 각각 30이 되도록 하여 보시요.



6호 바둑 넘기기 해답

